



‘법인화’ 큰 틀 갖춰 비상외 교두보 삼자!



雄飛를 위해 날갯짓 하는 모교 수업을 마친 재학생들이 관악캠퍼스 문화관 앞에 위치한 모교의 상징 조형물 ‘쌍학’을 지나가고 있다.

관악춘추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朱鍾龍동문은 “어려웠던 대학시절 지도교수였던 故 黃山德교수님의 도움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었다”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배들에게 이 기금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면서 ‘黃山德 장학기금’을 설립해 1억원을 출연했다.

모교 車相均교수는 공학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제어계측공학과를 개설하고 자동화시스템 공동연구소를 설립, 초대 소장을 지낸 高明三교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3억원을 기부했다.

故 金亨奎교수의 기부로 시작된 ‘해암 학술기금’은 장남

金鍾龍동문 등 모두 동문인 아들 오형제가 1억5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해 국어학 연구에 헌신한 신진학자를 계속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훈훈한 사연들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문들의 기부 릴레이 실제 사례들이다.

50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걸고 2006년 국내 대학 최초로 시작한 모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은 지금까지 5천6백여 명의 기부자로부터 2천4백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총 2천7백여 억원의 발전기금을 보유하게 됐다.

물론 하버드대 40조원, 예일대 27조원, 싱가포르대 1조1천 억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단기간에 목표액 80%의 성과를 올린 것은 우리도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번 캠페인이 일회성 기부에서 벗어나 외국의 명문 대학과 같이 안정적인 기부 문화로 정착되려면 개인 기부자의 확대, 특히 동문들의 적극적인 기부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프린스턴대 61%, 예일대 45%, 하버드대 44% 등 미국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평균 30% 이상의 졸업생들이 모교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데에 비해 모교의 경우 졸업 동문 수 30만으로 추산해서 동문기부참여율 5% 수준에 머물고 있다.

모교 발전기금은 내년 7월 까지 ‘VISION2025 모금캠페인 동문 참여 기간’으로 설정해 30만 동문 모두가 모교 발전과 도약에 동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한다.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과 지원은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참여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동문들의 정성으로 모인 기금은 후배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길러내고 모교를 2025년 세계 10위권 글로벌 대학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모교에 대한 기부는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라며 2백억원을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는 鄭哲圭동문,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고 씨알이 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라”고 1백억원 상당의 건물을 기부한 사업가 李龍熙씨의 평범한 얘기가 새삼 크게 들린다. 〈安國正는설위원〉

이제는 동문들이 나설 때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 검 흠커밍데이 중지

최근 신종 플루의 감염이 10~11월 중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리라 예보됐기에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0월 18일(일요일)에 예정됐던 제31회 흠커밍데이 검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부득이 중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흠커밍데이 행사를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내년 흠커밍데이 검 서울대 가족 친목대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변함없는 협조와 넓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특별기고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총동창회는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참석동문의 전원찬성으로 통과된 ‘개교 원년 재조정’ 문제를 모교 李長茂총장에게 건의했다. 그런 중에 한 동문의 전화를 받고 이 글을 쓰게 됐다. 이 동문은 그동안 병환으로 총회도 참석을 못했고, 동창회보도 꼼꼼히 읽지 못했다고 했다. 따라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사실 이 문제는 그토록 복잡한 문제이거나 그 뒤에 어떤 공공이 속셈이 숨어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역지춘향’식으로 校史를 엮장수 엮기락 맘대로 늘리듯 재조정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말씀드렸다.

처음 이 문제가 동문간 화두에 올랐을 때 林光洙회장은 무척 조심스럽게 접근하셨다. 먼저 동창회보를 통해 ‘紙上贊反討論’을 벌였으며, 한편으로는 본회 회장단, 본보 논설위원, 기고자 및 집행소위원들과 10여 차례의 모임을 갖고 난상토론을 거쳤다. 또 史學의 李泰鎮원로교수(모교 前인문대 학장·現명예교수)에게 위탁해 무려 2백83쪽에 달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 제출케 했다. 이를 토대로 高宗의 칙령으로 1895년 5월 6일 설립된 法官養成所의 개설일을 모교의 개교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는 ‘컨센서스’를 얻게 됐다.

세계의 모든 대학이 개교 원년을 설정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하나는 ‘單線型’인 경우다. 대학의 역사가 단선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아무리 미미한 시작이라도 그 연원부터 따져 역사를 그대로 이어내려 오는 경우다. 교사 1명에 학생이 9명밖에 안 되는 목사양성소가 하버드대의 鼻祖다. 국

내에서는 중앙대가 종로 중앙교회에서 창설한 중앙유치원을 그 모태로 삼고 있다.

둘째는 ‘統合型’인 경우다. 대학이 성장과정에서 독립적인 다양한 기관들과 통합하는 경우이다. ‘카네기’공대와 ‘펠론’연구소가 통합해 만들어진 ‘카네기·펠론’대는 그 개교 원년을 통합시기인 1969년으로 하지 않고 역사가 더 긴 ‘카네기’공대의 개교 원년인 1905년을 ‘카네기·펠론’대의 개교 원년으로 삼고 있다.

正統과 正體性

모교 開校 元年 재조정의 當爲와 經緯



孫 一 梧
(법학51입)
본회 상임부회장
본보 편집인

국내에서는 연세대가 1957년 ‘연희대’와 ‘세브란스’의대가 통합해 설립됐다. 하지만 개교 원년을 1957년으로 하지 않고 ‘연희대’보다 역사가 긴 ‘세브란스’의대의 설립연도인 1885년을 ‘연세대’의 개교 원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모교인 서울대는 두 번째인 統合型 케이스다. 해방이 되자 미군정은 법령 102호로 10개 기관(9개 전문대와 1

개 대학)을 통합해 국립 서울대학교를 설립했다. 따라서 10개 학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서울 법대의 鼻祖 法官養成所의 개설을 개교 원년으로 삼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正統을 지키며 正體性을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법관양성소는 첫 해에 50명이 입학해 47명이 졸업했으며, 李 儼열사와 咸台永 前부통령이 제1회 졸업생이었다. 당시 신문명을 수용하기 위한 기간 인재양성 교육기관으로서 그 규모와 질에 있어서 어느 나라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다.

또 혼동하기 쉬울 것 같아 이 한마디를 꼭 첨언해야겠다. 소위 ‘國大案’이 채택되기 전에 ‘綜大案’이란 게 일시적으로 계획된 적이 있다. 이 안은 ‘경성대’를 중심으로 확대해 7개 대학과 1개 대학원의 종합대학교로 개편하려는 구상이었다. 만일 ‘綜大案’이 채택돼 오늘에 이르렀다면 개교 원년 재조정이라는 말조차도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일제가 京城帝國大學을 설립한 1924년을 개교 원년으로 복원한다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영락없이 일제 망령의 부활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하는 개교 원년 재조정은 이와 전혀 다른, 日帝 殘虐의 清算작업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토록 뽕뽕하고 중요한 문제를 왜 여태까지 내버려 뒀느냐는 반문이 나올 수 있다. 솔직히 말해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얼마나 있었던가. 恒産者에게 恒心이라고나 할까.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다락구석에 처박혀 있던 족보를 꺼내 먼지를 털고 정리하는 격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自畫像이 아니던가.

모교는 지금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유장한 역사와 막강한 재정력을 가진 명문대학들과 경쟁해야 한다. 동창회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선 반토막난 校史라도 제대로 찾아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이 충정을 동문들이 헤아려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관악시단

그 늦술가락

崔斗錫(국어교육76-80)
시인·한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그 늦술가락 잊을 수 없네
취한 손님이 오면 내놓던
짚수세미로 기왓가루 문질러 닦아
얼굴도 얼비치던 늦술가락

사촌누님 시집가기 전 마지막 생일날
갓 빙근 꽃봉오리 갈던
단팥 친구들 부르고
내가 좋아하던 금레 누님도 왔지

그때 나는 초등학교 졸업반
누님들과 함께 뒷산에 올라
급이급이 오솔길 안내하던 나에게
날다람쥐 갈다는 칭찬도 했지

이어서 저녁 먹는 시간
나는 상에 술가락 젓가락을 놓으며
금레 누님 자리의 술가락을
몰래 얼른 입속에 넣고는 놓았네

그녀의 이마처럼 웃음소리 환하던
부잣집 말며느리감이라던 금레 누님이
그 술가락으로 스스럼없이 밥 먹는 것
나는 습막히게 지켜보았네

지금은 기억의 공간에 숨겨두고
가끔씩 꺼내보는 늦술가락
짚수세미로 그리움과 죄의식 문질러 닦아
눈썹의 새치도 비추어 보는 늦술가락

노리나무광장

요즘 우리 사회의 으뜸 화두는 단연 ‘위장전입’이 아닌가 싶다. 좋은 싫든, 하나의 세대가 돼버린 듯한 느낌이다. 남들이 하나까 나도 손해를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이다. 새 정부의 제2기 내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단골 메뉴로 드러났다.

문제는 위장전입이 엄연히 불법이라는 사실이다. 실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주소만 서류상으로 슬쩍 옮겨 놓는다면 그로 인한 법률적, 행정적 혼란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허위로 주소를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는 것도 그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 규정은 거의 사문화돼가고 있다. 단속의



許 英 燮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본보 논설위원

이처럼 위장전입이 관행처럼 이뤄지다 보니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어느 정도까지는 묵인해 줘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법규 위반을 놓고 타협하겠다는 모양새는 어딘지 민망스럽다. 음주운전 경력만 있어도 고위 공무원 승진에 제동이 걸리는 판에 국무위원을 임명하면서 법규를 뒤흔들고 돌리자는 주장이니 말이다.

사실, 인사청문회를 열면서 흥역을 치른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청문회 때마다 비슷한 문제들이 제기되곤 했다.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에 세금탈루, 논문 중복게재, 자녀의 병역 관련 의혹 등이 빠지지 않고 도마에 올랐다.

후보자의 업무 능력을 따지기보다 도덕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현행 인사청문회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도덕적인 부분을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서도 찜찜하긴 마찬가지다. 정부에 대한 신뢰의 붕괴와 함께 자칫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도덕 불감증을 부추길 우려가 크

‘위장전입’ 바이러스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서로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규다 할 수 있겠는가. 법과 원칙을 앞세운다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동안 드러난 지도층 인사들의 위장전입 사례를 보면 대체로 자녀의 학군 배정이 주요 목적이지만 부동산의 편법 취득을 위한 목적도 적지 않다. 사안에 따라 경중을 가릴 수는 있겠으나 어느 경우도 몇몇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나는 그런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발뻠만으로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를 떠나서도 어떤 식으로든 특단의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계속 이렇게 나가다간 누구라도 기회가 잡히면 선뜻 위장전입을 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순진하게 법규를 지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유혹의 느낌이 더 끈끈할 것은 당연하다. 위장전입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좀더 뻘뻘스럽고 탐욕스런 강심장으로 변해 가는 것은 아닐까.

서울大同忠會報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林光洙
편집인 孫一梧
인쇄인 朴薦壽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裴仁俊,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實, 金亨珉, 李東官, 趙在鏞, 金鎮國, 崔英勳, 李容式, 李相起, 蔡耕玉, 許文明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邊榮顯 광고부장 金千鶴



본회 회장단을 비롯해 단과대 및 지방지부 임원들이 동창회 발전을 기원하며 친목을 다졌다.



李吉女부회장(右)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동문 골프대회서 齒大 단체 우승

모교에 발전기금 1억6백만원 전달

메달리스트에 韓榮熙·權富玉동문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평생의 동반자로서 모교 발전에 더욱 기여하자”고 말했다.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9월 7일 경기도 여주군 렉스필드CC에서 제5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각 단과대학(원)과 특별과정, 직능 및 지방지부동창회에서 참가한 동문 1백57명이 샷건방식으로 18홀씩 Mountain·Lake·Valley코스를 돌았다. 순위를 가리는 대표팀 단체전과 개인전은 스트로크방식, 남·여 친선팀은 신페리오방식으로 진행됐다.

林光洙회장은 대회사에서 “금년에도 대회 집행위원회 임원들께서 선두에서 서서 모교에 대한 발전기금 모금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사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한 뒤 “처음엔 걱정도 됐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대회가 본연의 취지인 각 단과대학과 지방지부 임원들의 마음에 애교심을 불러일으켜 이후 많은 동문들께서 모교 지원에 동참하고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또 “모교와 동창회가 서로 이끌어 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 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문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평생의 동반자로서 모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교 金信福부총장은 학교 근황을 소개하면서 “현재 모든 서울대인의 초미의 관심사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일에 입법에 고대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한 후 11월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교는 국가기관으로서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보호막과 안정된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법인체제로 전환해 혁신과 도약의 계기로 삼고자 하며, 앞으로 재정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에도 총동창회와 동문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상식에 앞서 가진 모교 발전기금 전달식에서 본회 李吉女부회장이 대회 집행위원회 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한 기금 1억6백만원을 모교 金信福부총장에게 전달했다.

朴榮敏경기위원장의 보고에 이어진 본상 시상에서 작년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던 치과대학 동창회팀이 함께 2백31타로 대표팀 단체전 우승을 차지해 우승기와 기념품을 받았다.

남녀 메달리스트에 70타를 기록한 韓榮熙(HPM 22기)동문과

77타를 친 權富玉(HPM 1기)동문이 선정됐다.

대표팀 개인전 우승은 73타를 기록한 丁光榮(AIC 18기)동문이 차지했으며, 남녀 친선팀에선 朴相垌(경영82-86)동문과 成善玉(AIP 28기)동문이 각각 1위에 올랐다.

林鍾昊(치의학82-88)동문이 2백58야드, 李珍姬(식품영양83-87)동문이 2백야드를 쳐 남녀 롱게스트를 차지했다.

남자 니어리스트상은 1.2m를 기록한 金峻鎬(GLP 6기)동문, 여자 니어리스트상은 金讚淑(치의학56-60)동문에게 돌아갔다.

남녀 감투상은 姜信浩(의학46-52)동문과 徐桂淑(기약56-60)동문, 남녀 행운상은 姜熙昌(기계설계83-87)동문과 李成恩(간호73-77)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여러 홀에서 이글이 나왔으며 개인전 3위를 기록한 郭基馨(GLP 17기)동문이 알바트로스를 기록해 林光洙회장으로부터 기념품을 받았다.

이날 Mountain 7번홀과 Lake 3번홀에서 홀인원을 기록한 경우 프라이머모터스에서 부상으로 승용차 렉서스(ES350) 1대를 제공하기로 했으나 행운의 홀인원은 나오지 않았다.



대표팀 단체전 우승 치과대학동창회



알바트로스 기록한 郭基馨(右)동문 디지털피아노 당첨 朴炯烈(右)동문



메달리스트 韓榮熙·權富玉동문



대표팀 개인우승 丁光榮(右)동문



친선팀 남자우승 朴相垌(右)동문



친선팀 여자우승 成善玉(左)동문



롱게스트 林鍾昊·李珍姬동문



니어리스트 金峻鎬·金讚淑동문

이날 참가자들은 발전기금에서 제공한 즉석 기념사진을 받았으며 디지털피아노, 건강 검진권, 공기청정기, 디지털 카메라, 골프

용품, 호텔 식사권, 건강식품 등 푸짐한 경품을 받았다. (表)

(수상자 및 협찬자 명단 4면 참조)

동문 골프대회 각 부문별 수상자

- ▲대표팀
단체전 △우승 : 치과대학동창회 羅炳宣(치의학69-76)·姜泰聲(치의학71-77)·鄭炯泰(치의학74-80)·林鍾昊(치의학82-88) 동문. △2위 :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창회 崔首賢(AIC 9기)·丁光榮(AIC 18기)·金容三(AIC 12기)·李海東(AIC 20기)동문. △3위 : 법과대학동창회 禹泳華(법학62-66)·金鉉翼(법학73-80)·河光龍(법학76-80)·李丞淵(사법83-87)동문.
개인전 △우승 : 丁光榮(AIC 18기) △2위 : 姜泰聲(치의학71-77) △3위 : 郭基馨(GLP 17기) △4위 : 河光龍(법학76-80) △5위 : 尹鉞鎬(FIP 4기)동문.
▲친선팀
△우승 : 朴相昱(경영82-86)·成善玉(AIP 28기) △2위 : 李東鶴(FIP 6기)·金孝永(AIP 29기) △3위 : 劉載天(AMP 31기)·李吉女(의학51-57) △4위 : 鄭喜鎔(AIP 27기)·崔스미(간호76-80) △5위 : 曹佐鎭(GLP 17기)·李承炫(국악87-91)동문.
▲메달리스트 : 韓榮熙(HPM 22기)·權富玉(HPM 1기)동문.
▲롱게스트 : 林鍾昊(치의학82-88)·李珍姬(식품영양83-87) 동문.
▲니어리스트 : 金峻鎬(GLP 6기)·金讚淑(치의학56-60)동문.
▲감투상 : 姜信浩(의학46-52)·徐桂淑(기악56-60)동문.
▲행운상 : 姜熙昌(기계설계83-87)·李成恩(간호73-77)동문.

협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林光洙(기계공학48-52)분회 회장 : 일금 5백만원
• 徐廷和(법학51-55)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
• 李吉女(의학51-57)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건강검진권 5매
• 金鎭炫(사회54-58)세계평화포럼 이사장 : 일금 5백만원
• 孫京植(법학57-61)분회 부회장 : 일금 5백만원·스팸 선물세트 10개
• 朴容晔(의학62-68)의대동창회장 : 일금 5백만원
• 申榮均(치의학48-55)신영예술문화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李海遠(행정51-55)분회 부회장 : 일금 4백만원
• 徐桂淑(기악56-60)음대동창회장 : 일금 4백만원
• 洪性大(수학57-63)분회 부회장 겸 관악회 상임이사 : 일금 4백만원
• 金鮮東(화학공학59-63)미래국제재단 이사장 : 일금 4백만원
• 尹東宣(GLP 17기)디엠티앤피비 사장 : 3백만원
• 李金器(약학55-59)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케어쓰리 유제품 3백개
• 李浚鎔(경제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讚淑(치의학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孔大植(기계공학56-6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安秉勳(행정57-61)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世榮(약학57-61)약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鳳九(조소58-63)미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許鎭奎(금속공학59-63)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趙炳祐(섬유공학59-64)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卞柱仙(영어교육60-64)사대동
- 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鄭啓泳(상학61-66)관악회 이사 : 일금 2백만원
• 朴浩田(경영62-66)관악회 이사 : 일금 2백만원
• 金一燮(경영64-69)관악회 감사 : 일금 2백만원
• 李角模(수의학64-69)수의대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洪禮杓(치의학65-71)치대·치의학원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金鍾燮(사회사업66-70)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삼익악기 디지털피아노 1대
• 尹汝斗(농공학67-71)동양물산기업 부회장 : 일금 2백만원·수저 세트 5개
• 鄭八道(AIP 1기)분회 부회장 : 일금 2백만원
• 姜錫大(AIP 15기)우양기건 대표 : 일금 2백만원
• 鄭喜鎔(AIP 27기)AIP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申一汕(AMPFRI 14기)AMPFRI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카보나 숲구이판 10개
• 辛東烈(GLP 3기)성문전자 회장 : 일금 2백만원
• 姜德壽(GLP 8기)STX그룹 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鍾大(GLP 16기)GLP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洪起南(SPARC 5기)SPARC동창회장 : 일금 2백만원
• 李載厚(법학58-62)김&장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일금 1백만원
• 洪龍濤(경제64-72)상대동창회장 : 일금 1백만원
• 金貳煥(신대원72-75)안대원동창회장 : 일금 1백만원
• 姜信浩(의학46-52)분회 고문 : Nature's Secret 음료수 5백개
• 孫吉丞(상학59-63)분회 부회장 : 위커힐호텔 식사권 10매
• 辛鉉雄(지리64-68)분회 부회장 : 웅진 발효홍삼원세트 7개



개교이래 첫 法·經 체육대회

땀 흘리며 학문간 장벽 허물어

지난 9월 24일 모교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법대 법학부, 경영대 경영학과, 사회대 경제학부의 교수와 학생들이 뜻을 모아 제 1회 법·경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경영대 安泰植학장이 제안해 법대 및 사회대 경제학부가 동의해 진행됐다. 安학장은 “법과 경영, 경제

는 학문적 연관이 깊고 교수나 학생간 교류를 통해 얻는 이점이 많다”며 “같은 집안 식구들이 한 번 뭉치자”고 설명했다. 학생들의 수업이 끝난 오후 3시에 진행된 행사에서 경영학과 金秀旭(경영85-89)교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과가 소원하게 지 내기보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어

울리니 참 좋다”며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해 학교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는 축구·짜파구·여학생 승부차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마지막에는 다같이 줄다리기와 계주로 마무리를 했다. 짜파구에서 경제학부는 교수와 학생이 짝을 이뤄 사제시간에 정겨운 경기를 펼쳤다.

경기 이후 참석자들은 글로벌 하우스에서 리셉션을 통해 학과간 벽을 허물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가졌다. 재학생 김은영(법학07입)양은 “날씨도 좋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답답한 교실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우승은 법대 재학생들이 차지했으며 참석자 전원이 USB 메모리стик(4G)을 상품으로 받았다.

각 종목별 우승팀은 다음과 같다. ▲축구 법대 ▲피구 경제학부 ▲계주 경영대 ▲줄다리기 법대 (榮)

동문작품 지상전시회



'Untitled', 광목에 먹, 아크릴, 90.9×72cm, 2009.

宋根英作

〈작가약력〉

▲86~90년 모교 동양화과 졸업
▲90~94년 모교 대학원 졸업
▲Pulse 외 개인전 6회
▲03년 MY ART FAIR

▲08년 Art International Zurich
▲09년 Bridge Art Fair New York,
ARTO Art Fair Busan, Shanghai Art Fair
▲현재 서울대, 수원대 강사

2010년 포켓용 DIARY·탁상용 달력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포켓용 DIARY’와 ‘탁상용 캘린더’를 준비했습니다. 동창회 DIARY와 캘린더는 모교 발전과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평생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 주신 동문께 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2010년 庚寅年의 설계와 구상을 새롭게 변신한 동창회 DIARY에 메모하시며 보람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동창회를 사랑해 주시는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대총동창회

• 李潤雨(전자공학65-69)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디지털카메라 5대
• 尹錫金(AMP 27기)웅진그룹 회장 : 웅진 공기정정기 2대
• 金光石(AMP 38기)AMP동창회장 : 참존 화장품세트 10개
• 金有煥(AMP 54기)한미스포츠 대표 : 골프장갑 4백80개·모자 2백40개·양말 7백20켤레·홀주머니 2백40개·우산 2백40개
• 權五榮(AMP 64기)아일랜드 회장 : 대부도 포도 2백 상자
• 姜普英(HPM 1기)의료법인 안동병원 이사장 : 건강검진권 5매

동창회에 이런 일이...

10·11 월 행사 캘린더

10월 18일(일) 오전 10시

• 부산지부 홈커밍데이

경남 양산 영산대학교

〈문의 : 051-811-1013〉

10월 26일(월) 오전 10시

• AIC동창회 골프대회

경기 기흥 코리아CC

〈문의 : 010-9777-9000〉

10월 20일(화) 오후 12시30분

• AIP동창회 골프대회

경기 화성 리베라CC

〈문의 : 878-9467〉

11월 7일(토) 오전 8시30분

• 전북지부 야유회

전주 공설운동장

〈문의 : 063-250-2018〉

10월 22일(목) 정오

• 공대동창회 골프대회

경기 기흥 남부CC

〈문의 : 880-7030〉

10월 22~23일

• 생활대동창회 40년 행사

모교 관악캠퍼스 문화관 등

〈문의 : 880-1453〉

10월 23일(금) 오전 10시

• SPARC동창회 등산대회

관악산

〈문의 : 880-4353〉

10월 24일(토) 오전 9시

• GLP동창회 등산대회

경기 파주 교령산

〈문의 : 6000-6520〉

10월 25일(일) 오전 7시

• 의대동창회 골프대회

인천 그랜드CC

〈문의 : 740-8183〉

11월 13~14일

• SPARC동창회 골프여행

전북 고창CC 등

〈문의 : 880-4353〉



흔울회

중남미 작가 초청 전시회

미대 출신 여성 동문들로 구성된 흔울회(회장 孫文子)는 지난 9월 9~19일 서울 한국국제교류재단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제32회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沈竹子(회화 49-55)·李信子(응용미술50-55) 동문 등 70명의 회원과 중남미 작가 17명이 작품을 출품했다.

첫 날 오프닝 행사에는 白文基 고문,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 상임부회장, 미대동창회 金鳳九

회장, 모교 미대 章洙弘학장, 權純亨 명예교수 등이 참석해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흔울회 동문 여러분께서는 정기전 외에도 세계 우수작가들을 초청해 교류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 국내 미술 분야가 한 단계 도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해오신 것을 치하드립니다”며 “앞으로 60년, 1백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미술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80년에 결성된 흔울회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인도 등 해외에서 매년 작품전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만 평

李元馥



동승클럽

李秀千 동문 포럼 강연

문리대 65학번 동기 모임인 동승클럽(회장 朴熙俊)은 지난 9월 11일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에서 李秀千(사회65-72)동문의 ‘그림 시장 엿보기’란 주제로 16차 동승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潤熙·金定姬·崔一玉 동문을 비롯해 34명의 동문이 참석해 국내 미술 경매시장 현황과 작품 고르는 법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동승클럽은 지난 2002년 창립 때 4백여 명의 회원이 있다. 분기별 정기포럼과 매월 여행, 등산, 바둑 등을 통해 동문간 친목을 다지고 있다.

AMPFRI동창회

조찬세미나 열어

식품 및 외식산업보건 최고경영

자과정동창회(회장 申一汕)는 지난 9월 22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종합예술학교 개그MC과 辛尙勳교수를 초청해 ‘유머로 유혹하라’라는 주제로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韓基永·呂弼東·尹煥植 전임 회장, 申一汕 회장, 모교 보대원 李承旭교수 등 1백여 동문이 참석했다. (南)



수의과대학동창회

재학생 5명에 1천만원 전달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角模)는 지난 9월 17일 모교 관악캠퍼스 수의대 스코필드홀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학부 및 대학원 학생 5명에게 1천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모임에는 李文漢수석부회장, 姜寅求·林國煥·白忠基부회

장, 吳孝成이사, 朴鍾鳴감사, 장학재단 金善中이사, 모교 수의대 權五鏡학장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동창회는 지난 1997년 장학재단을 설립해 지금까지 85명의 재학생에게 1억9천4백여 만원을 수여했다.



임학동문회

장학금 수여·밤줍기 행사 가져

임학동문회(회장 鄭潤煥)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광주시 태화산 모교 학술림에서 정기총회 및 밤줍기 행사를 개최했다.

尹汝昌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기총회에서 2009년도 결산보고,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으며, 林鳳周감

사가 동문회 회계 및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 이어 임원 개선을 통해 모교 산림과학부 任相浚(농공85-89)교수를 부회장으로 선임했으며 만장일치로 회칙을 개정했다.

이날 鄭潤煥회장이 설립한 ‘일성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에서 산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

29회 동기회 골프 우승

화학생물공학부동창회(회장 許宗弼)는 지난 9월 20일 경기도 여주군 소피아그린CC에서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추계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체우승 및 최다 참가상 : 29회 동기회 ▲개인 우승(신페리오 방식 적용) : 洪幸珉(공업화학81-85)동문 69타 ▲준우승 : 金相旭(화학공학61-65)동문 71타 ▲메달리스트 : 朴賢修(화학공학86-91)동문 74타 ▲니어리스트 : 金東鶴(화학공학87-91)동문 2.5m ▲롱게스트 : 李鍾求(화학공학84-88)동문 3백20m ▲다과상 : 李均鐵(화학공학68-75)동문

AFB동창회

연예인 초청 골프대회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崔炳五)는 지난 9월 17일 경기도 용인 신원CC에서 1백여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제5회 친선골프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탤런트 길용우·이민우·유태웅·정수라 등 연예인 11명과 이새미, 박부원 등 프로골퍼 5명이 함께 했다.

이날 경기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승 : 이계주(6기)동문, 준우승 : 허삼구(7기)·김병희(9기)동문 ▲메달리스트 : 姜太星(1기)동문 ▲니어리스트 : 백종수(7기)동문 ▲롱게스트 : 김유철(9기)동문 ▲다버디상 : 全文煥(1기)동문 ▲다과상 : 鄭陽泳(3기)동문

ROTC동문회

1회 관악문무포럼

ROTC동문회(회장 金鍾燮)는 지난 9월 7일 서울 역삼동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제1회 관악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金一燮(경영64-69·7기 관악회 감사)회장이 연사로 나와 ‘세계 속의 한국 경제와 우리의 위기관리’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金鍾燮회장은 “동문회가 그냥 만나서 식사하고 헤어지는 차원을 넘어 정신생활을 고양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변화하기 위해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동문회

동문 2백20명 모교 방문

전기동문회(회장 張世昌)는 지난 9월 1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2백20여 명의 동문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흙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張世昌회장, KC코트렐 李達雨(전기공학48-53)회장, 한신에너지 李林擇(전기공학61-65)대표, 서호전기 李相鎬(전기공학66-70)대표, 이엔테크놀로지 李泰植(전기공학78-82)대표, 디지털스트림테크놀로지 金周鉉(전기공학78-82)대표, 태형산전 金泰亨(전기공학79-83)대표, 다암마이크로 田翺洙(전기공학79-85)대표, 엠엠씨테크놀로지 洪承億(전기공학80-

84)대표 등이 금품을 협찬했다.

전기동문회는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총회와 흙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하며 2천9백여 명의 동문들이 화합을 도모하고 있다.

영문학과동창회

柳 津회장 선출



영어영문학과동창회는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열린 재건총회에서 풍산 柳 津(영문78-83)회장(사진)을 제5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南)

“연구비 지원 때 학교·지역 안배없이 능력중심으로 평가”

동문을 찾아서

朴贊謨 한국연구재단 초대 이사장

지난 6월 하순 우리나라 학술 분야에 지각변동이 일었다. 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하 ‘학진’)과 과학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과학재단 및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이 통합, 한국연구재단으로 공식 출범한 것이다. 연간 예산 3조원 가까운 규모로 국내 모든 연구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담당할 이 거대 재단의 수장에朴贊謨(화학공학54-58)동문이 취임했다.

각기 다른 길을 걸어온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작업도 엄청난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앞으로 화학적 통합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뤄내느냐는 것이다. 서울 헌릉로 한국연구재단 서울 청사에서 만난 차이사장은 두 어깨에 주어진 과제가 힘들기도 하련만 시종 은은한 미소로 탐방자를 맞았다. 그는 무엇보다 겸손했다.



대담 : 尹在錫논설위원 (국민일보 논설위원)

— 초대 이사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출발선에 서신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장기화되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지식창출과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학술 진흥과 연구개발의 선진화를 이끌어야 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우선 통합 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선진화된 기초 연구지원시스템을 확립하고 연구자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애쓰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면 다양한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섯 가지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모든 학문 및 연구 분야에 대한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선진형 연구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연구관리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연구성과의 사회적 활용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연구재단 조직 운영의 선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 과거 과학재단이나 ‘학진’은 그 자체로 거대 기관이었고, 또 나름대로 엄청난 지원 사업을 해 와서 각기 헤게모니가 있었을 텐데요. 따라서 단기간에 물리적 통합은 됐지만 화학적 통합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실 지 가장 관심거리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원들을 배치할 때도 1, 2, 3지망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물리적 통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하려 한 것이죠. 다 반영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맞추려 애썼습니다. 사실 물리적 통합도 아직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지금 대전 청사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완공되면 서울 청사에는 국제협력센터만 남게 됩니다. 일단 다 모이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 화학적 결합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 통합과정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결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초대 이사장이 어느 분야에서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과학기술 분야의 이사장이 와서 인문사회 분야가 홀대를 받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코디네이션할 계획이신지.

“우선 5E 원칙을 정했어요. 탁월성(Excellence), 형평성(Equity), 효율성(Efficiency), 전문성(Expertise), 소통성(Exchange)의 머리 글자를 딴 것이죠. 그 중에서 형평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해요. 하지만 형평성이란 나눠먹기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또 지적하셨다시피 인문계가 걱정이라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것은 요즘 같은 융합시대엔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이 같이 가지 않으면 새로운 창조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인문사회와 이공계가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또 그렇게 가야하고요.”

— 성공지상주의 연구지원도 문제인데.

“저는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할 때 그게 1백% 성공한다면 그건 연구가 아

닙니다. 창조적 연구는 더욱 아니고요.”

— 이번 ‘나로호’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럼요. 실패를, 새로운 것을 과감하게 허용해야죠. ‘High risk, High return’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겠죠. 특히 독창성이 뛰어난 연구 제안서를 우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 해요. 그해야 실패를 무릅쓰고 과감한 독창과 예측을 갖고 올 테니까요.”

— 2조6천억원이라는 예산은 정말 막대한 규모입니다. 공정하게 분배돼야 할 텐데요.

“한국적인 현실이긴 합니다만, 이사장이 되니까 대학 총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전화해서 ‘안배’를 이야기하시더군요. 그래서 ‘우린 안배라는 것이 절대로 없다’고 했어요. 공학연구센터(ERC)나 과학연구센터(SRC)에 지원한 총장들인데, 어떤 분들은 찾아오겠다고 해요. 그래서 찾아오지 마시라고 했어요. 안배로는 학문을 발전시킬 수 없거든요. 연구비를 따려면 실력을 키워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나눠먹기식, 이미 다 했던 것을 다시 제출해 연

구비를 타가던 관행을 이번 기회에 싹 없앨 거예요.”

— 연구재단의 역할 중에서 ‘사후평가’를 엄격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연구재단이 연구비 분배과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다행히 제 자신이 대학 총장도 했고, 재단에 연구비 신청도 많이 해봤고, 평가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게 잘못이고 문제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상근 연구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21명과 비상근 PM 2백80명을 뒀어요.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재단 안에서는 이사장이 절대로 뒤에 안배를 한다거나 학연, 지연 등을 따지지 않는다는 소문이 났어요.”

—李明博정부 들어서 과학기술계의 피해 의식이 큰 것 같아요. 한국연구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고,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각인시켜 드릴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李明博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했고, 당선 후 당선인 정책위원,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하지 않았습니까.李대통령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고 인식하고 계세요. 선거 때도 ‘경제를 살리자’고 하실 때 제가 옆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 수긍을 하셨거든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칠 때 대통령의 의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교육부의 업무 중 초·중·고 관련 일은 지방자치단체로 보내고 고급인재 양성기능을 과기부와 합쳐서 좋은 인재양성에 힘을 쏟자는 것이었는데 문제는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장관으로 공학자를 기용하셨죠. 아깝게도 장수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세요.”

— 인문사회 분야 분들과 스킨십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스킨십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문사회 분야를 우대하려고 해요. 제가 컴퓨터 분야 중에서도 가상현실 분야를 공부했지만, 지금 컴퓨터 분야는 완전히 융합이라 인문사회와 자연 이공계가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 재단에 융복합단이 있어요. ‘학진’ 때보다

“실패를 허용하는 분위기 만들겠다”

인문사회 분야 ‘學振’ 때보다 더 지원

• 한국연구재단은

선진형 연구지원 기관 예산 2조6천억원

대한민국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진흥할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법(법률 제9518호)에 따라 지난 6월 26일 설립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정부 출연기관이다. 한국과학재단,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을 통합해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전 분야에 대한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의 지원, 학술 및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과 활용지원, 국제협력 촉진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에서 관리하는 연구사업은 올해 기준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21.1%인 2조6천81억원 규모로 국내 최대이며, 정

부 R&D투자와 기초원천연구비중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2012년에는 약 4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연구재단은 출범 직후 과거 3개 재단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연구관리전문가(Program Manager) 중심 조직으로 재편됐다. 연구재단은 이사장과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5본부 2센터 33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연구지원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출범으로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학제간 융합을 통한 창조적 신지식 창출 촉진, PM에 의한 최고 수준의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 평가 및 연구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창의적 연구 환경 조성,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지원 체제 구축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노벨상 학자 배출 위해선 유능한 젊은 과학자 키워야

☑ 좀 더 세분화해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자연과학 80%, 인문사회 10%, 공동비용 10% 등 예산을 갖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공계는 기기, 장비가 무척 고가입니다. 사실 과제 수는 오히려 인문 쪽이 더 많습니다. 연구재단이 인문 쪽도 중요시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해야죠.”

— 대한민국이 가진 일종의 강박관념이지만 노벨 과학상에 대한 꿈이 커요.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조만간 한 분쯤 받았으면 하는데, 이사장으로 오시면서 이에 대한 기대나 바람이 있는지요.

“노벨상 받는 사람들은 수십 년의 연구업적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젊고 미래가 있는 사람을 길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6·25전쟁 이후 경제를 살려야 해서 기초과학을 완전히 무시했는데, 그 당시 일본은 패전국인데도 기초와 연구개발 쪽을 같이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매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토양이 형성된 거죠. 생명과학을 연구하고 계신 미국 UC버클리의 金聖浩(화학60쪽)교수를 비롯해 BT 분야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IT쪽은 상이 없으니까. 아무튼 젊은 교수들, 장래가 유망한 사람들을 지금부터 자꾸 길러야 돼요. 우리가 스타 과학자를 만들어야 돼요.”

— 예전 얘기 좀 하죠. 재미과학기술자협회(이하 재미과학협)가 주축이 돼서 해외 인재들을 규합하고 상당수가 이를 통해 국내 유치 과학자로 돌아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이사장님께서도 많은 일을 하셨죠.

“1973년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초창기에 왔어요. 1회 입학생부터 4회까지 가르치다가 1976년 여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후 1989년 12월에 포스텍(당시 포항공대) 金浩吉(물리56쪽)총장이 불러서 다시 들어왔죠. 같이 재미과학협에서 활동하던 시절 우리가 약속한 게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밤낮 이야기한 게 ‘왜 한국에는 중앙에만 좋은 대학이 있느냐, 지방에 좋은 대학이 생기면 다같이 나가서 일하자’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몇 년 후 金浩吉박사가 총장이 돼 우리보고 ‘이젠 약속 지켜라. 훌륭한 학교가 될 테니까 나오라’고 해서 李貞默(조선항공54-58)박사와 저를 비롯해 재미과학 협 회원들이 여럿이 왔어요. 워싱턴 마피아라고 불렸죠. (웃음)”

— 화학공학을 전공하셨는데 컴퓨터공학으로 바꾸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미국 메릴랜드주립대 화공학과 시절, 첫 학기인 1960년 2월에 ‘화공학자를 위한 수학’ 과목을 수강하던 중에 교수님의 오류를 발견한 것이 인연이 돼 같은 해 9월 학기에 공과대학 교수님들을 위해 개설한 컴퓨터과목을 듣게 됐습니다. 그 이듬해 메릴랜드대에 처음 도입된 컴퓨터실에서 거의 매일 밤을 지새우다시피 하면서 컴퓨터에 빠져들었죠. 이후 컴퓨터를 활용해 공학석·박사학위를 받고 바로 메릴랜드대 전자계산학과 조교수로 부임하게 됐죠.”

— 이사장님은 가상현실 전문가이신데요. 그 분야말로 융합 아닙니까. 영화, 건축, 예술 분야가 다 연관이 되고 부가가치가 높



7년간 북한과 IT분야 공동연구

“전문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라”

아 산업화도 가능한 분야죠. 중책을 맡으셨지만 관심 분야를 손놓고 계실 것 같지는 않은데요.

“포스텍 총장을 하면서도 다른 것은 안 해도 가상현실 분야는 꾸준히 연구해 왔습니다. 북한 평양정보센터(PIC)와 공동으로 7년간 연구했어요. 가상현실 분야에서도

건축분야죠. 북한이 ‘산악’ 이란 캐드(CAD)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북한은 3차원은 ‘산악’, 2차원은 ‘들’이라고 해요. 재미있죠. 하여간 3차원 컴퓨터 보조설계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토캐드2002’보다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가격은 몇 십 분의 1인 반면에, PIC 소장이 건축을 한 분야예요.

건물 설계를 하면 설계한 건물이 항상 뭔가 잘못된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짓고 보면 ‘아,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것을 컴퓨터 가상현실로 미리 체크해 보는 거예요. ‘Walk through’라고 하죠. 들어가서 사이버 상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서 진짜로 집을 지을 때는 하자를 줄이는 겁니다. ‘워크스루’는 포스텍에서 개발했어요. 그래서 같이 7년을 했습니다. 지금도 포스텍에 제가 시작

엔벤에서 북한 과학원의 러철기 교수를 만난 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북한과의 IT 교류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IT를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의 교류·협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계속적으로 북한과 교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는 ‘북한의 정보통신기술(2003)’과 ‘IT로 말하는 통일 한국의 미래(2005)’ 등 북한 IT관련 저서를 공동으로 집필하고, 2001년 설립허가를 얻은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맡아, 지금까지 꾸준히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한국연구재단이 남북한 과학기술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의 거점을 점차 확대·다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북한과의 기술교류를 위한 연구지원도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민하신데도 현역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어 행복하실 것 같아요.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웃는 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저를 보면 다들 기분이 좋아진대요. ‘一笑一愁一老’ 아닌가요. 게다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저는 모교 기독교 동문회에도 관여를 하고 있어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 모교에 하고 싶은 말씀은.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이공계로 압축해서 보면 결국 세계 수준급이란 데가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이잖아요. 저는 묘하게도 다 연관돼 있어요. 서울대 동문이고 카이스트 초창기에 와서 4년을 가르쳐서 현재 제자들이 카이스트 중견교수들이고, 포스텍에서 거의 18년 가르쳤으니 3개 대학 동문인 셈이죠. 그래서 모두 다 잘되길 바라죠.”

— 모교 교수진이나 후배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오래 전 한 공익재단에서 해마다 교수해외연구 지원사업을 하는데 과학기술심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대 출신들이 내는 제안서는 심사위원들이 보자마자 집어 던져요. 정성을 안들이고 타자도 안하고 대충 써왔거든요. ‘우리 실력 있다’ 이런 자만심이 강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참 보기 안 좋았어요. 특히 서울대인은 윤리와 인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바른 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드 스킬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스킬이 받쳐 주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니까요. 저는 포스텍 총장일 때도 졸업 학점 1백20학점 중 29학점을 인문사회학을 택하게 했어요. 입학식 때도 신입생들에게 늘 ‘전문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라’고 강조했죠. 인간이 된 다음에 전문가가 돼야지, 인간답지 못하면서 전문가가 되면 ‘사회악’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서울대 출신의 기라성같은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돼 과학계의 잃었던 신망을 되찾아 줬으면 좋겠어요.”

(사진=李五峰는설위원·정리=金南柱기자)

• 朴贊謨이사장은

1958년 모교 공대 화학공학과를 나와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공학석사(1964년)와 공학박사(1969년)를 받은 후, 메릴랜드대 전산학과 조교수를 거쳐 1973~76년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전산학을 가르쳤다.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가톨릭대 교수로 있다가 1989년 귀국, 포스텍 교수로 근무하다 2003~2007년 포스텍 총장을 역임했다.李明博후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권

창출에 기여했고,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취임 전까지 대통령 과학기술특별보좌관으로 일했다.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장(1984~85년), 한국시물레이션학회장(1991~92년), 한국정보과학회장(1993년) 등을 지냈고, 현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로회원이다. 북한과의 교류에도 관심을 가져 북한평양정보센터(PIC)와의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통일 IT포럼 회장을 역임했다. 모교 기독교동문회 고문이기도 하다.

토종 애니로 세계의 童心 사로잡아

꼭신꼭신한 봉제세상 코지랜드에 사는 보라색 공룡 ‘디보’는 토끼 ‘버니’, 까마귀 ‘크로’, 코끼리 ‘엘로’, 큰언니 ‘애니’, 그녀의 애완동물 양 ‘올리버’와 함께 지내며 매일 친구들에게 뱃속에서 선물 하나를 꺼내주며 신나는 모험을 한다. 전 세계 1백20개국 메이저 방송국의 전파를 타고 있는 토종 영상애니메이션 ‘선물공룡 디보’가 시작되던 어린이들은 TV 속 세상으로 풍덩 빠져버린다.

전 세계 1백20개국에 수출

지난 2003년 아동용 TV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탄생시켜 국산 캐릭터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드는 데 성공한 (주)오콘 金一鎬(산업디자인88-95)대표는 3년 뒤 단독으로 제작한 ‘선물공룡 디보’를 선보이며 또 한 번 전 세계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국에선 ‘뽀로로’를 모르는 아이가 없을 정도로 ‘뽀로로’의 인기는 단연 최고이지만, ‘디보’ 역시 뛰어난 작품성과 상품성을 인정받아 현재 ‘디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아이와 함께 영어로 노래부르고 놀며, 자연스레 공부가 되는 영어학습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전 세계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영어 영상콘텐츠는 오콘이 처음이다.

“뽀로로와 디보 모두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이지만, 공동제작이 아닌 우리만의 힘으로 ‘창조’해낸 ‘디보’에 좀 더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죠.”

金동문이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이라도 그와 1분만 대화해 보면 알게 된다. (金동문은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어휘군으로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크리에이터라는 단

어를 인터뷰 내내 사용했다.)

조금은 평범하지 않은 파마머리와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화술 그리고 자유로우면서도 포말한 웃차림의 金동문에게선 크리에이터로서의 개성이 느껴지는 동시에 국내 최고의 영상 애니메이션회사를 이끌 어온 CEO로서의 면모를 느낄 수 있다.

졸업 후 대기업 디자인연구소에서 2년간 근무하던 중 金동문은 어느 날 10년 선배와 그 선배의 10년 선배와 담배를 피우다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이 차례대로 오버랩됐다고 한다.

“그 모습이 제 미래인데, 싫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내가 행복할까?’ 고민해보니 내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그걸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고, 만들어진 가치가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줄 때 행복하겠구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의 아내(禹知希 산업디자인91-95·크리에이티브 전략부문 총괄상무)와 동기, 이렇게 셋이서 브랜드컨설팅사업을 시작했죠.”

부인 禹知希동문과 사업 시작

오콘은 96년부터 대기업에 브랜드컨설팅과 CGI 애니메이션 작업을 해주며 관련 분야에선 제법 잘 나가는 회사로 성장했다. 2년쯤 지났을까. 金동문은 다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수주받아 남의 브랜드를 개발해주는 일이 ‘크리에이터’로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의 브랜드모델 즉, 1백년, 2백년이 가는 지적재산을 만들자 결심하곤 컨설팅사업을 접었죠. 그러면,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고부가가치사업이면서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뭘까 머리를 맞대니 아동용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머리 속에선 끊임없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 문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다. 金동문은 솔직함과 진정성으로 투자자들을 설득시켜나갔다. 지난 10년간 그가 유치한 금액은 약 5백억원. 성공비결을 물었다.

“투자유치를 많이 한건 자량이 아니에요. 중요한건 무엇을 이루었느냐죠. 일단 좋은 얘기부터 하지 않았어요. 1백명에게 좋은 얘기를 하면 절반이 남아요. 그리고 나서 나쁜 얘기를 하면 한 명도 안 남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단점을 얘기하면 90명이 떠날지 몰라도 ‘꼭 실현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마음을 열더라고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매 순간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무장한 金동문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겠다는 꿈을 ‘뽀로로’와 ‘디보’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통해서 실현시키고 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요. 우리의 코어는 교육과 관련된 콘텐츠사업과 그걸 통해서 만든 property를 브랜드화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를 공간으로 만드는 테마파크나 키즈카페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원석을 잘 가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金동문은 자칫 세계적인 브랜드 캐릭터

를 제작한 한국 애니메이션회사라는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남다른 직원회의와 경영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영어교육사업·테마파크 계획

“우리끼리 박수치며 하하거리지 말자라는 마음으로 회의만큼은 때론 욕도 난무하고, 선후배 가릴 것 없이 냉정하게 진행합니다. 이 안에서 안 깨지고 밖에서 망신당하면 결코 회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CEO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최고의 것을 속아낼 수 있고 버릴 건 과감히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중소기업의 CEO는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력,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끝없는 비굴함과 자기 확신이 있어야됩니다.”

주말엔 아들과 함께 아이스하키를 하는 아버지이자 요리 잘하는 남편으로 돌아간다는 金동문에게 개인적인 소망을 물어봤다.

“저는 CEO라기보다는 CCO(Chief Creative Officer)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작가도 한 번 해보고 싶고, 근사한 레스토랑도 하나 차리고 싶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사업만 할 수도 있고요. (웃음) 어쨌든 저는 천성이 ‘크·리·에·이·터’니까, 무언가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일을 하고 있겠죠.”

〈表〉

신종 불치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피부염 (이하 아토피) 환자가 해마다 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초등학교생 3명 중 1명은 아토피를 앓고 있다고 추정한다. 아이들뿐 만 아니라 각종 질병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미세 먼지와 해충은 친환경, 웰빙 시대의 적이 되고 있다.

(주)내추로바이오텍(Naturo Biotech, 이하 바이오텍)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새로운 질병과 바이러스들로부터 안전하게 대비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회사이다. 蔣熒燮(곤충학87-94)대표는 “바이오텍은 미래를 밝히는 회사,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

위생해충퇴치제 개발

지난 2000년 6월 국내 농업 바이오벤처의 글로벌화를 실현하기 위해 탄생된 바이오텍은 모교 농생대 실험실 벤처기업 1호로 현재 많은 동문들이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바이오텍은 총 29건의 국내 특허와 6건의 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천식협회 인증, 미국환경보호청 제품 등록 등 생활 주변의 자연 소재를 바탕으로 기능성 생리활성 천연물들을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다.

“효능만을 우선하는 기존의 화학합성제품을 대체하기 위해 바이오텍은 까다로운 유럽의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고기능성 제품들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개발된 바이오텍의 주요 제품으로는 위생해충퇴치제인 △알러제로(천식·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내추로바이오텍 본사

인류의 건강한 미래를 밝히는 기업

아토피·비염) △모스제로(모기 접근 방지) △마이트아웃(털진드기·전염병 방지) 등이 있으며 최근 개발된 새집증후군에 효과적인 ‘집드리’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바이오텍 제품은 천연성분을 활용해 환경을 보호하고 인체에 무해할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예방도 됩니다. 최근 농업 및 의약품 시장으로 기반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향후 의약품과 식품 분야로도 진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11월 바이오텍은 전라남도 장흥군과 투자 협약을 체결해 부설연구본원 설치, 천연물 연구 및 추출, 농자재 제조설비 설치, 대규모 자원식물 재배단지 조성 및 신규 사업 추진 등 도내 각종 연구개발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가 가치 창출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내년은 바이러스 분야를 핵심성장 사업으로 선정했다.

“신종 플루 등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가득한 지금, 우리 기업은 바이러스성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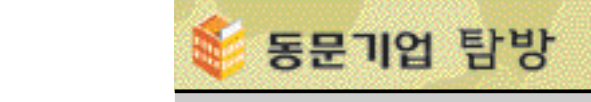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바이오텍은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독일 UBA(환경청) 판매허가 획득, 호주 식약청 등록 외에도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수출을 위한 국가별 인증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 중국에 생산 및 판매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구, 개발, 지적 재산권에도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상용화해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蔣熒燮대표



(주)내추로바이오텍

한라공조(주)



申泳住대표

한라공조(주)(대표 申泳住 AMP 42기)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도약해 가는 자동차 공조제품 전문 개발업체다.

국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포드, GM, 크라이슬러, 마쯔다 등 세계적인 회사의 자동차들이 한라공조의 에어컨, 쿨링 모듈, 컴프레서, 라디에이터 등을 달고 달린다. 지난 8월에는 유럽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독일 폭스바겐과 1천7백억원 규모의 에어컨 부품 공급계약을 맺기도 했다.

지난해 국내 본사 기준으로 총 매출액만 1조5천3백37억원. 캐나다, 태국, 포르투



대전광역시 신일동 한라공조 본사

세계 자동차 기업의 ‘넘버원’ 파트너

갈, 인도, 중국 등지에 있는 11개 해외법인의 매출까지 더하면 2조3천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중 수출 비중이 70%.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손색이 없다.

한라공조는 1986년 3월 미국 포드자동차와 만조기계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다. 지금은 미국의 비스데온이 대주주로 있다. 대전에 본사와 기술연구소 및 에어컨 공장이 있으며 평택에 컴프레서 공장, 울산에 프론트 엔드 모듈 공장,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 약 1천7백명 등 해외법인 직원을 포함하면 5천3백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주 생산품은 공기조화장치와 압축기, 에어컨, 컴프레서, 열교환기. 컴프레서는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효자 종목이다.

컴프레서·에어컨 등 생산

컴프레서 기술은 1989년 설립한 기술연구소에서 독자 개발해 미국과 일본 등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특히 최근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에 들어간 가변형 컴프레서는 세

계시장에서 한라공조의 기술우위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제품이다. 지난해 미국 크라이슬러로부터 수주한 RSV(Rotary Suction Valve) 컴프레서는 기존 제품에 비해 엔진의 동력 효율을 높여 연비를 개선시킨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7년 세계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의 기술대상인 ‘페이스 어워드(Face Award)’를 수상한 ‘웨이브 팬&톱니형 쉬라우드’의 경우, 기술연구소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소음원 분포 정밀측정기술’을 적용한 제품이다. 이는 기존 제품보다 소음을 대폭 감소시키고 풍량과 냉각효율은 크게 향상시킨 차세대 냉각팬 모듈 제품이다.

작년 매출액 1조5천억원

한라공조 설립 초기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거나 모방 생산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20여 년이 흐른 지금, 독자 개발한 기술을 10여 개국에 수출해 지난해에는 2백24억원의 기술로열티 수입을 올렸다. 해외 특허 3백15건을 포함해 전체 1천1백52건의 특허 기술도 보유하게 됐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기업’이란 환경방침 아래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친환경 이산화탄소 냉매 시스템과 연료전지 자

동차에 적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에어컨&히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제품의 생산단계에서도 친환경 마인드가 적용된다. 모든 공장에서는 법규 기준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적용해 각 오염물질을 법규대비 15%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또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제조공정의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고효율 인버터(inverter) 적용 및 드라이오븐(Dry Oven)의 廢熱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처리 합리화를 위해 폐수 고도처리 시스템 및 총탄화수소(THC) 제거 설비를 설치했다.

한라공조는 대외적인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1995년부터 ‘1사1하천 운동’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대청호-계곡산 살리기 대전시민 마라톤대회’ 등을 후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위해 지역사회 인재육성과 불우이웃 돕기를 위한 지원금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장수CEO 중 한 사람인申 사장은 1994년 10월 대표이사에 올라 열린 경영과 투명 경영을 통해 지금의 한라공조를 일궈냈다.

申사장은 “인간과 고객, 기술이라는 경영이념과 전 직원들의 노력으로 지금의 성장을 이뤄왔다”며 “세계 자동차 기업이 선택하는 No.1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南)



6회 우수인재 채용박람회 성황

97개 업체·5천명 최다 참가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는 지난 9월 8~9일 관악캠퍼스 본부 앞 잔디

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노동부·지식경제부·본회가 후원하는 제6회 ‘2009년 우수인재 채용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하반기 기업 채용 규모가 예년에 비해 감소했

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1개 업체, 4천5백여 명이 참여했던 기록을 넘어 97개 업체, 5천여 명의 구직을 희망하는 재학생들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또 행사에는 단순히 그냥 둘러보는 것보다 뚜렷한 목표를 정해서 상담을 받는 학생들이 증가했다.

경력개발센터(소장 朴順愛)가 주관하는 채용박람회는 해마다 모교에 가장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왔다. 경력개발센터는 매출액 기준 2백위 이상, 채용설명회 개최 경험, 학생 설문조사 등을 기준으로 기업의 참여 의사를 타진해 업체를 선정한다.

세부행사로는 ‘2009 글로벌 인재양성포럼’, 구직준비활동과 해외인턴십 관련 홍보 및 지원부스 운영, 학생들이 참여하는 취업프로그램 아이디어 모집, 맵인안내견 체험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미술관

세계 관화 작품 전시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대사관과 공동으로 ‘예술의 두 가지 꿈 : 세계의 거장들과 이탈리아 관화공방 2RC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27인의 관화 작품 1백21점을 소개한다.

또 전시를 통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이탈리아 관화공방 2RC의 발자취를 엿보으로써 국제 무대에서 유명한 현대 관화의 살아있는 역사를 조망해 볼 수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 및 국경일은 휴관한다. 〈문의 : 850-9504〉 〈榮〉

재학생의 소리



희망의 씨앗을 심는 ‘새싹멘토링’



任 勝 燦

(기계항공공학03입)

새싹멘토링 총반장

저는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새싹멘토링’이라는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2번씩 고정형편이 어려운 고등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과 영어 학습지도를 하고, 진로상담 그리고 대학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평소 봉사활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새싹멘토링’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빈곤의 되물림을 막자는 취지가 마음에 들어 신청하게 됐고, 멘토링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애들을 만나던 날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상처가 하나씩 있는 친구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첫 만남은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멘토링이란 활동은 처음이라서 서툰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란 시간을 매주 만나오면서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어두웠던 아이들의 표정이 이제는 많이 밝아졌는데 그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끼고,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합니다. 졸업 후에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데, 취직 후에도 계속해서 아이들과 좋은

인연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내년엔 친구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데, 수능 때까지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에는 지금 현재 ‘새싹멘토링’을 하는 학생들이 2백명 정도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노하우를 갖고 어려운 중·고등학생들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나눔의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대생들은 공부만 한다. 자기 생각만 한다’라고 주위에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많은 서울대생들이 ‘새싹멘토링’을 포함해 여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선배님들도 이러한 저희의 노력을 자랑스러워 해주시고, 앞으로도 서울대생들의 봉사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대학원·법과대학

이색 외국인 교수 채용

모교는 지난 9월 동티모르 대리 영부인 재클린 아키노 시아프노(42세)씨와 미국 존 라이트너(27세) 변호사를 국제대학원과 법과대학의 교수로 각각 채용했다.

국제대학원 최초의 외국인 전임 교수인 시아프노 교수는 동남아 정치와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런던대 아시아·아프리카대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캠퍼스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호주 멜버른대와 동티모르 국립대 교수를 지냈다. 모교에서는 ‘동남아시아 역사와 정치문화’, ‘동남아시아 정치경제’ 두 개 과목을 강의한다.

필리핀 출신인 시아프노 교수는 연구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동티모르 독립을 위해 활동하던 남

편 페르난도 아라우조 동티모르 국회의장을 만나 결혼했다. 동티모르는 호세 라모스 호르타 대통령이 독선인 관계로 나라법상 국회의장 부인이 영부인을 대리한다.

시아프노 교수는 “동티모르는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대국이 된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 교수로 충실히 강의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모교 최연소 교수인 존 라이트너 교수는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재원으로 뉴욕의 유명 로펌인 크라바스 스웨인&무어에서 JP모간, 크레딧스위스 등에 기업 지배구조, 증권거래 등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재학시절 한국을 여행하고 베이커&매킨지 일본 도쿄지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 모교에서는 ‘영미법 강독’과 ‘상법’을 강의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년교수 프로필

모교에서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을 위해 한 평생을 바친 교수 23명의 정년·명예퇴임식이 지난 8월 31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렸다.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헌신의 삶과 그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 이 분들의 약력을 간략히 소개한다.



安淸市교수·정치학

63년 모교 외교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7년 미하와이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정치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사회과학연구소장, EBS 이사, 한국국제정치학회장, 한국동남아학회장 등을 지냈으며 저서로는 '현대한국정치론' 등이 있다.



洪承樹교수·물리천문학

63년 모교 전문기상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5년 미뉴욕주립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천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65년 한국천문학회 창설에 기여했으며 모교 천문학과장, 한국천문올림피아드 위원장, 한국천문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金 堧교수·지구환경과학

64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5년 매사추세츠공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해양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해양연구소장·지구환경과학부장, 한국해양학회 이사, 교육부 학술진흥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金震均교수·건축학

64년 모교 건축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94년 서울시립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건축계획 및 설계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건축학과장, 대한건축학회장,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장, 건설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趙升淸교수·수학교육

64년 모교 수학교육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8년 캐나다 달하우지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수학교육 및 해석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교육종합연구원장·수학교육과장, 2003학년도 수능시험 출제위원장 등을 지냈다.



李弘顯교수·의학

62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9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 내분비학·당뇨병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대한당뇨병학회 부회장, 대한내분비학회 이사장·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 바이칼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姜溍生교수·의학

68년 모교 물리교육과에 입학해 72년 졸업,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 전임강사를 거쳐 의과대학 방사선종양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의학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사업이사 등을 지냈다.



任洪彬교수·국어국문학

63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1년 모교에 부임해 한국어통사론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국어국문학과장, 방송위원회 언어특별위원, 한국어학회장을 지냈으며 2006년 대한민국어학술원상을 수상했다.



李天杓교수·경제학

63년 모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6년 메브라운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국제금융론 및 정보통신 경제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경제부학장, 통신개발연구원장, 한국국제경제학회장, 금융발전심의회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閔東必교수·물리천문학

64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80년 佛カリ지11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자연대 교무부학장·물리학부장,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술진흥본부장,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洪京子교수·간호학

62년 모교 간호학과에 입학해 66년 졸업, 86년 이화여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0년 모교에 부임해 간호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간호대 학장, 시그마 데타타우 국제간호학회장, 서울시 간호사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간호대동창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朴庠根교수·법학

81년 모교 사법학과에 입학해 85년 졸업, 87년 모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獨本대에서 92년 석사학위, 96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강원대를 거쳐 99년 모교에 부임해 상법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저서로는 '주식회사법론' 등이 있다.



姜思俊교수·국악

63년 모교 국악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84년 연세대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86년 모교에 부임해 국악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국악과장·동양음악연구소장, 해금연구회장, KBS 국악관현악단 객원지휘자, 음대동창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崔允植교수·의학

63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9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학·심장질환 분야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순환기학회 이사장,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李明博대통령 주치의로 활동하고 있다.



張赫在교수·의학

88년 연세대 의학과에 입학해 94년 졸업, 2003년 연세대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대를 거쳐 2004년 모교에 부임해 내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현재 한국심조음과학회 학술위원·연구위원, 대한순환기학회 보험위원·홍보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李相億교수·국어국문학

64년 모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78년 美일리노이대에서 언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국어음운론 및 음성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모교 LA 미주센터 설립단장, 국제한국어학회 회장 등을 지냈으며 UCLA와 원격 화상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趙鎭民교수·물리천문학

62년 모교 물리학과에 입학해 66년 졸업, 75년 美시카고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2년 모교에 부임해 물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 출판위원회 위원장·사무총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울산과학기술대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李啓鎭교수·생명과학

64년 모교 약학과에 입학해 68년 졸업, 82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3년 모교에 부임해 발효미생물학 및 생물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기여했다. 89년 기초과학연구육성법 제정에 공헌했으며 한국미생물학회장,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장 등을 지냈다.



崔昌均교수·화학공학

63년 모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6년 美클락슨대에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8년 모교에 부임해 화학공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2005년 교내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쓴 교수로 선정됐으며 한국막학회 부회장, 한국화학공학회 총무이사 등을 지냈다.



鄭應根교수·체육교육

63년 모교 체육교육과에 입학해 67년 졸업, 76년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체육교육 관련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사대 학생담당 학장보·체육교육과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체육교육과동창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嚴隆義교수·의학

62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69년 졸업, 78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76년 모교에 부임해 생리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의학도서관장, 한국피지오훈연구회 초대회장, 대한생리학회 이사장, 세계생리학회 운영위원 등을 지냈다.



尹鍾洙교수·의학

65년 모교 의학과에 입학해 71년 졸업, 82년 모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80년 모교에 부임해 소아심장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소아학회 이사장·회장, 대한순환기학회 이사, 대한소아심장학회 이사, 대한가사와사끼병원연구회장 등을 지냈다.



李用瑾교수·치의학

80년 모교 치의학과에 입학해 86년 졸업, 94년 모교 대학원에서 치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원광대를 거쳐 99년 모교 치과생체재료과학교실 교수로 부임해 치과학 연구와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 치과대학원 연구부원장 등을 지냈으며 연송치의학상 대상을 수상했다.

모교 발전기금

3년간 총 2천4백억원 모금

2002. 07 ~ 2005. 07			권계구분	2006. 07 ~ 2009. 07		
참여액	참여율(%)	참여건수		참여건수	참여율(%)	참여액
81억5천	6.09	1,030	동문	4,721	11.81	220억
22억3천	1.66	216	교수	1,080	3.65	68억2천
13억	0.97	114	학부모	331	0.44	8억2천
1천	0.01	21	교직원	585	0.13	2억5천
45억	3.36	196	기타관계	964	27.81	520억
1177억	87.91	263	법인	629	56.16	1050억
1338억	100%	1,840	합계	8,310	100%	1868억

〈표1〉 캠페인 전후 기간별 약정 현황 비교(발전기금 재단 약정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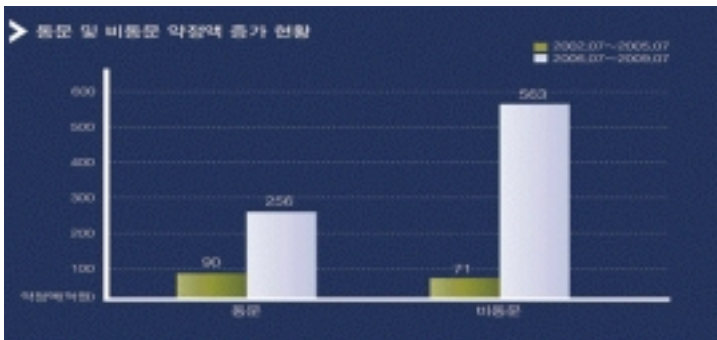
‘VISION2025’ 모금캠페인 통해
3천억 목표 대비 80% 달성

모교는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 약정액 기준으로 총 2천4백여 억원의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대학 중 최고 수준으로 현재까지 캠페인 기간 목표 모금액 대비 80%를 달성했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취임 후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2010년까지 발전기금 3천억원 모금을 목표로 ‘VISION2025’ 모금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모금캠페인 기간(2006년 7월~2009년 7월)과 캠페인을 추진하기 3년 전 기간(2002년 7월~2005년 7월)을 비교해보면 동문, 교수, 기타관계 등 각 집단별로 발전기금 기부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1 참조〉

모교 발전기금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은 기업의 거액 기부 의존도가 컸던 기존 대학들의 모금방법을 질적으로



〈표2〉 동문 및 비동문 약정액 비교

발전시켰다. 또 이것은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캠페인 시작 전과 후 기간별 약정 건수 비교 현황을 살펴보면 동문·교수·학부모 등 각 집단별로 골고루 약정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동문의 약정액은 71억원에서 5백63억원으로 캠페인 시

작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비해 무려 8배 가량 증가했다. 〈표2 참조〉

이는 태광사 李龍熙회장(1백억원 상당 부동산 기부), 전은기·김은희 여사(경기도 이전 고택과 인근 부동산 62억원 상당 기부)와 같이 동문이 아닌 기부자들의 거액 기부와 함께 1백만원 미만의 비동문 소액 기부 건수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非동문·소액 기부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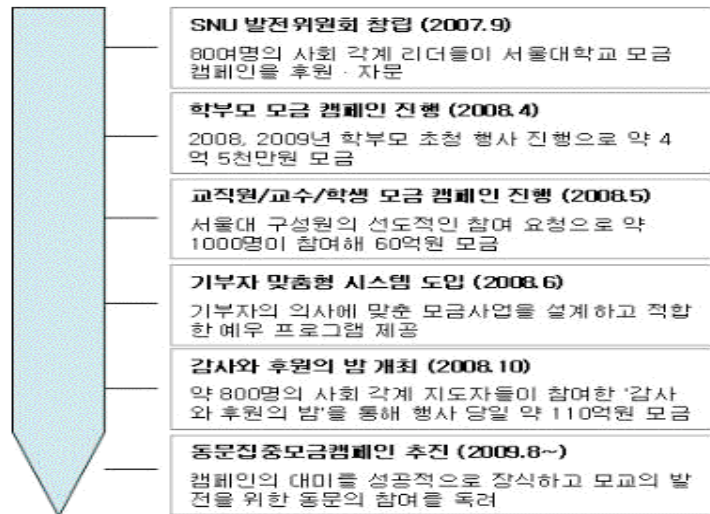
李총장은 2006년 취임하면서부터 재정확충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캠페인에 많은 프로그램을 추진해 동문과 사회로부터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李총장은 학부모 모금캠페인으로 약 4억5천만원, 교직원·학생 모금캠페인으로 약 60억원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유력인사 8백여 명을 초청한 ‘2008 세계로 도약하는 서울대, 감사와 후원의 밤’을 개최해 행사 당일에만 1백10억원의 발전기금을 유치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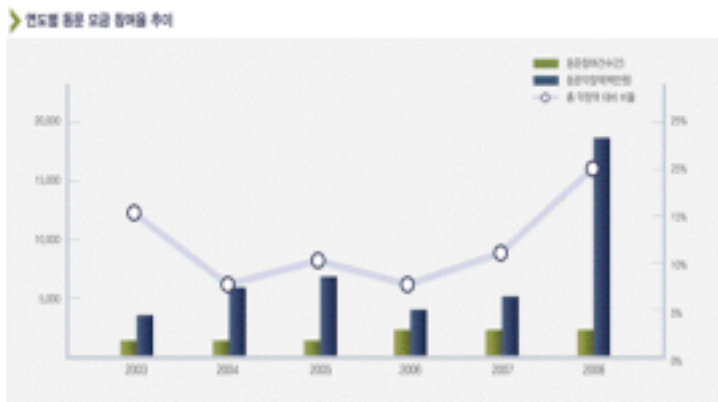
또 기부자 개개인의 의사에 따라 모금사업을 설계하고 기부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부자 맞춤형 예우 프로그램으로 체계화하는 등 전반적인 모금시스템을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표3 참조〉



2008년 ‘감사와 후원의 밤’ 모금만찬 행사 전경



〈표3〉 발전기금 사업 경과 진행 상황



〈표4〉 동문 모금참여 추세

동문 3만명 참여 유도

현재까지 동문 참여율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 비해 약정액이 4배 가까이 증가해 동문들의 거액 기부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4 참조〉

그러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은 평균 약 30%의 졸업생이 금액에 관계없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모교는 아직 전체 동문 중 기부 참여율이 5% 수준(동문 수 30만명 추산)에 머물고 있다.

발전기금은 현재 1만5천여 명 수준의 동문 참여율을 전체 동문의 10%인 3만명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동문 모금캠페인을 집

중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李총장은 “미국의 하버드대나 예일대와 같이 해외 명문대학이 추진하는 모금캠페인을 벤치마킹해 국내 최초로 집중적인 모금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동문, 비동문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분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을 실감했다”며 “이러한 각계각층의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가능성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이제 남은 1년을 동문 집중 참여 기간으로 선포하고 목표한 총 모금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적극적인 모금 참여를 호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VISION2025 모금캠페인
동문 참여 방법 안내

모교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초일류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집중 모금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모교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무통장입금(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 농협 : 079-17-000136
- 신한 : 100-014-328209
- 우리 : 1006-601-280134

◆온라인 [http : //www. snu. or. kr](http://www.snu.or.kr)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가능)

◆전화 참여 02-880-5026 / 02-871-8146

※ 유증 및 부동산, 유가증권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방문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에 출연해주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돼 소득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연구·학술활동 등에 사용

모교 발전기금



롯데장학재단이 70억원을 출연해 지난 6월 완공된 롯데국제교육관

달라지는 캠퍼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 9월 이후, 모교 관악캠퍼스는 분주하다. 현재 학내 곳곳에는 기숙사 리모델링을 비롯해 신양학술정보관 3호관, 대림국제관, SPC농생명 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 등 여러 건물이 공사 중이고, 법학도서관, 롯데국제교육관, 신양학술정보관 2호관 등은 이미 완공된 상태다. 롯데장학재단(이사장 盧信永 법학50-54)이 70억원을 출연해 지

술정보관은 강의실과 학생들의 세미나, 스터디, 정보검색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대림산업(회장 李俊鎔 경제56-60)의 50억원 기부로 건축 중인 대림국제관은 현재 약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대림국제관은 2010년 4월 완공 후 어학 교육과 외국인 교수 연구실 등 대학의 국제화를 위한 교육·연구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다. SPC그룹(회장 許英寅)이 45억원을 기부해 건설 중인 SPC농생명과학 및 기초과학연구동은 지하

세계 최고 도약 위한 인프라 구축



신양문화재단 鄭哲圭이사장이 기증한 신양학술정보 2호관



지난해에만 5백46억원 집행

장학금·기금교수 지원 확대키로

기금 사용 내용

모교는 지난해 총 5백46억원의 발전기금을 집행했다. 단과대학과 교내 기관의 목적사업을 위해 1백92억원, 연구·학술활동에 1백33억원을 지원해 한 해

동안 사용된 발전기금 중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타 항목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 대학 평가시스템 구축, 취업 지원 활성화 등 각종 기획홍보사업에 전체 발전기금 중 13.6%인 74억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계석학을 초빙하거나 기

금 조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젊고 우수한 교수를 채용하는 데에 사용된 발전기금은 30억원으로 2008년 전체 예산의 5.5%에 불과하다. 사용된 3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26명의 기금교수가 채용된 상태지만, 모교는 앞으로 최대 1백명까지 기금교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교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를 안정적으로 초빙하는 기금교수제도가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활동과 장학기금으로 지원하는 항목 역시 3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 중 5.5%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독지기의 후원으로 발전기금 및 동창회 장학재단을 통해 전액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9백6명인데 반해, 장학금을 받지 못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천8백33명에 달한다. 발전기금 南益鉉상임이사는 “학생들을 글로벌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기반은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통해 배움의 질을 높이는 것과 장학금 확충으로 학생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동문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난 6월 완공된 롯데국제교육관은 모교의 국제화 사업을 가속화하고 대외교류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건립됐다. 지상 6층, 연면적 5천2백㎡ 규모로 외국인 교수 연구실과 국제학회 사무국, 외국대학 사무국, 아시아연구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양학술정보관 3호관은 사회대 주차장에 4층 규모로 설립되며 2010년 3월 완공될 예정으로 2004년 1호관, 2008년 2호관에 이어 세 번째다. 신양문화재단 鄭哲圭(화학공학48-52)이사장이 1백20억원을 쾌척해 건축된 신양학

1층, 지상 5층 규모로 오는 10월에 완공된다. 세포배양, MRI 연구 등 농생명 및 기초과학 분야의 산학협력 연구를 위해 활용된다. 행정대학원(57동) 뒷편에 조성될 5만4천2백18㎡ 규모의 종합교육연구단지, 내년 10월 완공될 학생 기숙사, 해동도서관 등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SK경영관, 인문학 및 자유전공학부를 위한 인문학연구동이 증축 혹은 신축 중이다.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 모교의 발전이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

“맞춤형 기부컨설팅 해드려요”

예우 프로그램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현물, 遺贈 등 기부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발전기금은 기부자의 수월한 기부를 위해 개인에게 맞춘 기부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예우 프로그램도 새로 정비해 기부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발전기금은 현재까지 다양한 기부 사례를 통해 축적된 경험을 바

탕으로 기부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및 법률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펀드레이저, 세무사, 고문변호사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부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금을 출연한 기부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뜻을 더욱 소중히 기리기 위한 기부자 맞춤형 예우 프로그램도 강화했다. 그 중에서도 연고가 없는 기부



모교 관악캠퍼스 본부 현관에 설치된 명예의 전당

자가 유언을 통해 기부한 경우, 기부인의 요청에 따라 장지 구입, 빈소 마련, 발인 등 장례식 및 사후처리와 49제를 지내는 등 유족

의 역할을 수행하며 기부자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맞춤형 장례 예우 서비스’도 시작했다. 발전기금은 이러한 기부자 맞춤형 예우 서비스가 기부자의 만족도를 높여 기부 문화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부인의 명예가 빛날 수 있도록 관악캠퍼스 본부 1층 현관을 기부인 이름을 새겨 넣은 명예의 전당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이와 함께 기부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의 근조기를 무료로 전달하는 ‘근조기 예우 서비스’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모교 발전기금

부동산·주식·현물·유증도 가능

기부, 어떻게 하나요 Q&A

Q. 기부시 세제 혜택이 있는지.
A. 모교 발전기금에 기부하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소득의 1백%까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연도 법인세전이익의 50%까지 범위에서 기부금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시 기부한 금액만큼 제외하고 상속 재산을 신고하기만 하면 기부금액 전액에 대해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동산, 주식, 현물 등을 기부했을 때 기부금액 산정은.

A. 현금으로 기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부동산, 주식, 현물로 기부했을 경우 기부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기부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주식, 현물에 대한 가액(시가)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며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기부자와 협의해 기부 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前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기부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기부하면 공시지가나 과세표준 또는 기부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의 거래신고가 있는 경우 그 거래 가액을 기부 가액으로 산정하며,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의

뢰해 기부 가액을 산정하거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Q.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의 기부 절차는.

A. 부동산을 기부하게 되면 기부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으로 환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고,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 또한 절감할 수 있어 그만큼 기부 가액도 증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기부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이전하기 위해 추가적인 서류의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등기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 기부는 상장된 회사의 주식인지 아닌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상장된 주식은 소지하고 있는 증권을 그대로 발전기금에 전달하거나, 증권회사에 위탁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주식을 발전기금의 증권계좌로 이체하면 바로 명의이전이 됩니다. 비상장된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을 기부하겠다는 증여계약을 작성하고 모교 발전기금이 직접 해당 회사에 연락해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채권 기부도 주식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Q. 상속 재산을 기부하려면.

A. 상속받은 재산의 기부도 가능합니다. 기부한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시 기부한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상속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받은 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서울대학교발전기금에 기부하시면 다음의 혜택을 받으십니다.

구분	내용	President's Honor 10만원 이상	Gold Honor 100만원 이상	SNU Honor 1억원 이상	SNU Sponsor 10억원 이상	SNU Sponsor 100억원 이상
기념품 및 간접물	금시계	●	●	●	●	●
	기념품	●	●	●	●	●
	대학 정가선행물	●	●	●	●	●
	서울대 정액 증명	●	●	●	●	●
기부자 명예현장 및 배우	기부자 명예(대학본부)	●	●	●	●	●
	기념명칭 부여	●	●	●	●	●
	20년 주요행사 초청	●	●	●	●	●
	총장공관 헌장 초청	●	●	●	●	●
학교시설 이용권	모스코스모스센터 무료이용	●	●	● 2개월	(제한)	(제한)
	서울대 박물관 무료입장	●	●	●	●	●
	중앙도서관 이용	●	●	●	●	●
	중앙도서관 열람	●	●	●	●	●
서울대병원 및 진료소 무료 서비스	공적명의로 무료주차	●	●	●	●	●
	진료예약	●	●	● 2개월	●	●
	진료서비스	●	10년	● 2개월	●	●
	무로 주차	●	●	● 2개월	●	●
서울대병원 및 진료소 무료 서비스	총장전담병원 주선	●	●	● 2개월	●	●
	(의뢰가능)	●	●	● 2개월	●	●

모교 발전기금 기부자에 대한 금액별 예우 혜택

난 후 모교 발전기금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Q. 유언 통해 기부하고 싶은데.

A. 기부자가 생전에 미리 유언서를 작성해 두었다가 死後에 공개함으로써 기부자 자신의 재산 일부를 모교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遺贈이라고 합니다.

작성해 둔 유언서가 사후에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며 공개 이후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고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생전에 유언서를 공증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부자가 공증사무소의 변호사 앞에서 모교 발전기금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한다는 뜻을 밝히고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기부자의 유언이 사후에 보다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Q. 모교에 기부하는 방법은.

A. 간단한 약정(팩스, 이메일, 우편을 통한 약정서 송부 또는 온라인 약정)을 한 후 무통장입금, 지로입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납부방법을 선택해 입금하면 됩니다.

약정한 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거나 원하는 횟수만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의 쓰임에 대해서도 단과대학 및 학과 등 지원 단위와 기금용도를 지정할 수 있고, 학교에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단위와 용도가 학교에 위임된 기부금은 학교 발전에 필요한 우선순위를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전화 02-880-5026, 02-871-8146/팩스 02-872-4149 /이메일 gft@snu.ac.kr)

“선배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받은 사랑 보답”

鄭多恩(인문계열2 09입)재학생

저는 발전기금으로부터 ‘후배사랑 장학금’을 받은 장학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집안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져 학비에 대한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해왔지만,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학비가 걱정돼 합격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후배사랑 장학금을 받게 된 덕분에 1년 동안 부모님께 부담 드리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한비아 선생님의 강연에 갔다가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대해 배웠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이 후에 다른 사람을 돕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모두가 윈하게 되고, 이렇게 세상이 윈하고 설켜 있으니 서로 도와야 마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법칙’에 따라 이번에 받은 큰 도움 잊지 않고 꼭 보답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후배에겐 큰 감동

金喜頌(사회과학계열 09입)재학생

알지도 못하는 후배를 위해 선배님들이 힘을 모아주셨다는 것에 대해 정말 커다란 감동을 받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봅니다.

본래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아는 분의 빚 보증을 섰던 일이 잘못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집안 형편이 계속 좋지 않아 부모님이 이런저런 일을 하시며 돈을 버셔도 제 대학 등록금은 부모님께 너무나도 막대한 부담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대학생활이 즐겁고 설렘있지만 항상 학비에 대한 부담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제게 학비 부담없이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장학금 수혜를 계기로 부족하지만 저도 저보다 힘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겠다고 절실히 느끼게 됐고, 보내주신 정성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새싹멘토링 봉사

宋太柱(농업산업교육 04입)재학생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더 많은 경험을 쌓자는 취지로 새싹멘토링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멘티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민이 생겨났습니다. 오히려 멘토링의 어려움이 제가 진정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멘토링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장학금도 아니고, 수업능력의 향상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하나를 줬을 때 아이들은 저에게 하나 이상의 것을 주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가르침은 학생들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 활동을 통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문향 가득한 모교 캠퍼스 투어

서울대발전기금은 VISION2025 모금캠페인의 동문 집중 참여기간을 맞아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동문들이 모교방문 행사를 통해 달라진 학교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신청·접수 : (재)서울대발전기금 캠퍼스 투어 담당자
- Tel : 02-871-1620 / Fax : 02-872-4149
- 홈페이지 : http://www.snu.or.kr - E-mail : snuf@snu.ac.kr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이사장 李 長 茂

콩트 릴레이

위 인 전

金 碩 禧

(불문72-76)

소설가·번역가



김 아무개 하면 여러분은 언뜻 ‘병 속에 든 새’로 문명을 떨친 바 있는 소설가를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여기서 소개하려는 김 아무개 씨는 물론 다른 사람이다. 연배가 다르고, 용모가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인품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한 마디로 살아온 길이 다르다. 게다가 이름도 한글로는 같지만, 호적에 박히는 한자로는 가운데 글자가 다르다. 그러니 구태여 동명이인이랄 것까지도 없겠다. 그러나 새삼 흥미를 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둘 사이에 비슷한 구석이 없는 것도 아니다.

“

이른바 三房을 어릴 적부터
뒤통간 드나들듯 출입하며 마침내
대가의 반열에 오른 위인이다.
그 삼방이란
곧 노름방·냥싯방·계집방이니,
평생을 다 바쳐 한 구멍을 파도
문턱에 겨우 이룰까 말까 싶은
장삼이사들로서는
기가 타악 막히고
맥이 절로 풀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

아니, 굳이 따지고 들자면 꽤 닮았다는 생각도 든다. 인연이라고 말하면 어불성설이 될 테지만, 세상 이치가 다 그렇고 그런 게 아니냐는 소회쯤 나올 법도 하다.

저쪽 김 씨는 절(寺)집·돌(碁)집·글(文)집 등 三家를 들랑거리며 육십갑자를 살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쪽 김 씨는 이른바 三房을 어릴 적부터 뒤통간 드나들듯 출입하며 마침내 대가의 반열에 오른 위인이다. 그 삼방이란 곧 노름방·냥싯방·계집방이니, 평생을 다 바쳐 한 구멍을 파도 문턱에 겨우 이룰까 말까 싶은 장삼이사들로서는 기가 타악 막히고 맥이 절로 풀릴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천지간 만물이 다 나름대로 쓰임새가 있어 생겨났다는 선현의 말씀을 곰이 듣고, 그 미혹된 위안에 기대어 불우한 처지를 그런대로 견디며 살아온 이들 중에는 김 씨 같은 꼴물이 이 세상에 더불어 존재한다는 사실 앞에서, 웬지 속아 살아온 듯한 기분에 들끓는 부아를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고 텅 빈 하늘에다 감자를 먹이며 고래고래 악을 쓰는 축도 더러는 있을 터. 하지

만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겠는가. 하늘에서는 위로의 한 마디는커녕 눈물 한 방울 내려주지 않는 것을. 아니, 더럽게 재수 좋은 이라면, 날벼락은 아니더라도 거품을 문 입에 떨어지는 새똥 한 점쯤 천상의 선물로 받을지도 모르겠다.

범속한 무리들은 한 가지만 쟁겨도 남부러울 게 없는 터에 김 씨가 그 찬란한 세 분야에서 각각 일가를 이뤄 절대無比의 독보적 경지에 도달했음을 생각하면,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거기에 얹힌 사연에 대해서도 자못 호기심이 일지 않을 수



일러스트레이션 金多海(서양화02-07) 동문

기로 16강전, 마지막으로 8강전, 고스톱으로 4강전, 도리짓고뎡으로 준결승전을 돌파한 다음, 단판 승부의 포커로 결승전을 장식함으로써 마침내 지존무상의 지위와 함께 대망의 생존권을 쟁취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현신한 뒤에도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가는 곳마다 관썰기를 거듭하니 어느 누가 그와 대적할 마음이 나겠는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다들 고개를 틀거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상대할 짝이 없어서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처지가 돼버린 지금에 와서는, 번두리 시장 바닥에서 박보장기관을 기웃거리거나 뒷골목 빈터에서 동네 조무래기들과 동전치기를 하면서 노름꾼의 본능을 달래고 있다.

낙시 솜씨로 말할 것 같으면, 두 가지 사례를 드는 것으로 족하지 싶다. 한 번은 동네 앞 개골창에서 팔짝만한 갈치를 주렁주렁 낚아 올렸고, 또 한 번은 인천 앞바다에 놀러 갔다가 갯내에 몸뚱이만한 가물치를 쌍뉘바늘에 각각 한 마리씩 걸어 올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전설처럼 항간에 떠돌고 있거니와, 민물에서 바닷고기를 잡고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잡아냈으니 이를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벌어진 입을 끝내 다물지 못하고 그 어긋난 턱뼈를 교정

귀동냥하기 위함이다. 온갖 질문과 함께 펼쳐진 성찬 앞에서 그는 마치 오랜 고향을 마치고 저자거리에 나타난 수도승처럼 지긋한 눈길로 주위를 일별하고 나서 마침내 일 같하니, 그 말씀이 이르렀다.

“태초에 물고기 있었고, 물고기가 있고 나자 사람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말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 없으며, 그가 가슴을 치며 탄식하기를 “주 용왕님, 저 어리석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은 다음, 물고기보다 더욱 멸똥한 눈으로 앉아 있는 이들을 향해 벼락같이 화를 내며 다시 가로되, “용궁에나 다녀들 오세!” 했다.

그러자 그를 에워싸고 앉았던 이들은 우르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랫골목에 새로 들어선 술집으로 몰려갔는데, 그 집 이름이 용궁싸움인가 그랬다.

끝으로, 그의 계집방 출입에 대해서는 다른 사실 늘어놓을 것 없이 그의 왼쪽 콧방울 위에 팔알만한 점 하나 도도룩이 앉아 있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으리라. 이 사마귀에는 메기 수염만한 터럭까지 한 올 달려 있어서, 이 모양을 보는 사람마다 자못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니 누구는 결눈질하고, 누구는 흘겨보고, 또 누구는 뻥치 쏘아볼지라도, 그들이 하나같이 던지는 질문은 거기에요 그런 게 달려 있느냐는 것인바 그와 하룻밤 자고 난 여인네 치고 만리장성을 쌓다가 끝내는 까무러치지 않은 이가 드물었다는 사실이 그 성능에 대한 설명이 될 터이고, 그 크기에 대해서는 그가 직접 대꾸한 말을 소개하면 족할 것인즉, “임자 녀석의 기분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한다”가 그 대답이었다. 능소능대하다는 암시인데, 그러나 그의 연장을 직접 목격한 남정네가 없으니 사람들은 저마다 반신반의의 답답함을 애써 삼키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라는 콧방귀와 함께 영돌아져 떠나기 일쑤였다.

하나 더 덧붙일 것은 그가 한때 세 여자를 동시에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셋이 아웅다웅 다투기는커녕 친자매 이상으로 사이 좋게 지내면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로 서방님을 지극 정성으로 모시다가, 마침내 기진해 한낱한시에 코피와 하혈을 쏟고 세상을 하직했다고 한다. 그 뒤로 그는 생판 판사람이 되어 여자 보기를 돌보듯 했다.

그 연유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풀이했다. 세 여자가 임종의 자리에서 남편에게 간청하기를, “애고애고, 우리가 죽고 나면 어느 누가 서방님을 보살필꼬. 마음 같아서 저승까지 함께 가서 영원토록 모시고 싶소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 그래서 부탁인데, 죽기 전에 마지막 시중을 드리고 싶으니 우리의 간절한 청을 뿌리치지 말아 주오.”

그리하여 세 아내의 애절한 수작을 받으며 사흘을 밤낮 없이 보낸 다음, 손톱 끝까지 밀려온 피로를 이기지 못해 잠깐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세 여자는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나란히 누운 그녀들은 각각 터럭 한 올과 뿔사마귀와 아랫사마귀를 입에 가득 물고 있었다. 터럭과 사마귀는 다시 돌아났지만 그 후로 그는 계집방 출입을 영영 그만뒀다는 것이다.

이 미담은 아직도 누향 도처에 떠돌고 있으니 이를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같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대하듯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허구이기를 바라는 심사의 반영이 아니겠는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알려져 있지 않거나 어쨌든 그 기량과 기예가 얼마나 높고 깊은 수준인지, 항간에 떠도는 토막말이나마 듣는 사람 치고 찬탄과 경악으로 숨넘어가지 않는 이가 드물다.

우선 노름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는 장소 불문·종류 불문·상대 불문의 3대 불문왕을 신조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 그곳이 판이고, 쥐었다 하면 그것이 패고, 만났다 하면 그가 짝이다. 판을 벌임에 있어 높은 데 낮은 데 진 데 마른 데 가림이 없고, 패를 만짐에 있어 모나고 둥글고 부드럽고 딱딱함의 구분이 없으며, 짝을 이룸에 있어 남녀노소는 물론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 말하자면 그는 꿈속에서 황진이를 만나 하룻밤 수작에 목숨을 걸고 한 판 벌일 수 있는 위인이다.

언젠가 잠깐 얻어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부친의 씨주머니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부터 패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때 벌써 2억에 달하는 경쟁자들과 판을 벌여 제비뽑기로 예선을 통과하고, 뽕뽕이 돌리

하기 위해 정형외과로 달려간 숫자가 반,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 못하고 어리둥절한 채 뉘를 놓고 있다가 물에 빠지거나 뚝방 아래로 굴러 떨어진 숫자가 반이었다.

낙시에 있어서도 그는 예의 3대 불문왕을 신조로 삼고 있으니 바늘을 쓰기는 하되 미늘 없는 바늘을 쓴다는 것이 그 하나요, 동물성이건 식물성이건 광물성이건 미끼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둘이요, 물고기를 잡은 뒤에는 반드시 상처 하나 없이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 그 셋이다. 그의 손에 걸렸다가 살아서 돌아간 숫자가 적어도 시 단위 인구는 될 터인데, 그가 털어놓은 바에 따르면 그 절반은 두 번 이상 잡힌 것들이고, 때로는 1호 바늘 하나에 메기 3대가 줄줄이 걸려 올라온 적도 있었다고 한다. 수면 위로 올라와 눈알을 껌벅이는 모양만 봐도 그 녀석이 언제 어디서 잡혔던 놈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노름방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슬슬 달아나 버리는 것과는 반대로 그가 냥싯방에만 나타나면 끈들이 구름처럼 몰려드는 것은, 물론 그의 절륜한 기술을 한마디나마

동 정

수 상

▲池憲澤(치의학43-47 대한치과 의사협회 고문) = 최근 몽골 치과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몽골 차하이 엘벡 도르지 대통령으로부터 친선훈장 수훈.

▲李吉女(의학51-57 경원대 총장·분회 부회장) = 지난 9월 24일 몽골 정부로부터 '홍테트 텡데그 의료훈장' 수훈.

▲李御寧(국문52-56 중앙일보 상임고문) = 지난 9월 9일 한민족 문화협회로부터 제2회 한민족문화예술대상(문학부문) 수상.

▲朴才一(지리60-65 한살림 회장) = 지난 9월 5일 가나안농학교 설립자인 一家 金容基선생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제19회 일가상(농업부문) 수상.

▲姜昌淳(원자력공학61-65 모교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의장) = 지난 9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원자력 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金華榮(불문61-66 고려대 명예교수) = 지난 10월 9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제23회 인촌상(인문사회문학부문) 수상.

▲金勳東(농학63-69 수원예총 회장) = 지난 9월 15일 경기방송이 제정한 제5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문화체육부문) 수상.

▲金鍾信(기계공학64-72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지난 9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원자력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李漢龜(철학64-68 성균관대 교수) = 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인문학부문) 수상.

▲崔吉善(조선공학65-69 현대중공업 사장) = 지난 10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회 인촌상(산업기술부문) 수상.

▲曹鍾守(잠사학66-70 모교농생명공학부 교수) = 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응용부문) 수상.

▲李文烈(국어교육68 한국외대 석좌교수) = 지난 9월 7일 제54회 대한민국 예술원상(문학부문) 수상.

▲梁明承(금속공학69-73 한국원자력연구원장) = 지난 9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원자력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南 鏞(경제69-76 LG전자 부회장) = 지난 9월 22일 미국의 저명한 공공정책 포럼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로부터 우드로 윌슨상(민간경제부문) 수상.

▲任志淳(물리70-74 모교물리천문학부 교수) = 지난 9월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전산재료 과학총회(ACCMS)에서 총회상 수상.

▲申成澈(응용물리71-75 한국과학기술원 석좌교수) = 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

▲安相洙(체육교육71-75 인천광역시청) = 지난 9월 22일 미국의 저명한 공공정책포럼인 우드로 윌슨 국제센터로부터 우드로 윌슨상(공공서비스부문) 수상.

▲趙靑遠(화학공학73-77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 지난 9월 8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에 기여한 공로로 세계원자력협회로부터 공로상 수상.

▲南洪吉(화학75-82 포스텍 교수) = 지난 9월 17일 제54회 대한민국 학술원상(자연과학기초부문) 수상.

▲黃仁煥(화학77-81 포스텍 교수) = 지난 10월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3회 인촌상(자연과학

부문) 수상.
▲徐敎一(의학78-84 前순천향대 총장·동은학원 이사장) = 지난 9월 9일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개혁에 기여한 공로로 창조

근정훈장 수훈.
▲李東熙(AIP 30기 포스코 사장) = 지난 9월 7일 포스코봉사단활동을 통해 소외계층의 자립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

란장 수훈.
▲崔烈坤(ACAD 6기 前서울시 교육감·효실전문동분부 총재) = 최근 문학저널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고 수필문학가로 등단.

▲韓聖烈(ACAD 67기 조계종 대덕사 주지) = 지난 8월 13일 지역사회에 봉사한 공로로 경기도지사 표창장 수상.

▲尹東宣(GLP 17기 디엠티엔피비 대표) = 지난 8월 26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2009년 대한민국 글로벌 CEO상(중견기업부문) 수상.

▲權昇赫(의학41-47 前모교 총장·모교 의학과 명예교수·분회 고문) = 지난 9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결핵제료운동

본부 제2대 총재에 취임.
▲李姬鎬(교육46-50 前대통령 영부인·분회 고문) = 지난 9월 10일 사단법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에 선임.

▲金濬浩(법학52-56 도란 캐피탈 파트너스 고문) = 최근 미국 MIT와 고려대 간의 바이오관련 분야 공동연구협약을 체결시키고 운영자문위원회 이사에 선임.

▲金正國(행정61-65 열린사이버대 총장·법대동창회장) = 지난 9월 11일 서울 예고와 예원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예술

학원 이사장에 선임.
▲閔相基(경제66-70 모교경영학과 교수) = 지난 8월 31일 재출범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선임.

▲羅燾善(약학67-71 울산대 교수) = 지난 9월 9~10일 뉴욕 그린트리재단 콘퍼런스센터에서 유엔생명공학구상 위원에 선임.

▲鄭在貞(역사교육70-74 前한일관계사연구회장·서울시립대 교수) = 지난 9월 17일 동북아역사재단 제2대 이사장에 임명.

▲李康斗(행정71-73 국민생활체육협회회장) = 지난 9월 4일 임

인 사

▲權昇赫(의학41-47 前모교 총장·모교 의학과 명예교수·분회 고문) = 지난 9월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세계결핵제료운동

기 4년의 세계생활체육연맹 회장에 선출.

▲裴基同(고고인류71-75 한양대 교수)=지난 9월 1일 임기 4년의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차관급)에 임명.

▲尹在錫(화학교육71-75 국민일보 논설위원·본부 논설위원)=지난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과학기술 취재차 호주 방문.

또 9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분과특별위원회(보도·교양부문) 위원에 위촉.

▲李東植(영어교육72-76 KBS 부산방송총국장·본부 논설위원)=지난 9월 23일 KBS 보도본부해설위원실장에 선임.

▲金映伸(가정관리76졸 前한국소비자학회장·충남대 교수)=지난 9월 9일 제12대 한국소비자원 원장에 임명.

▲閔日榮(법학74-78 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법원도서관장·청주지방법원장)=지난 9월 17일 대법관에 임명.

▲金學炫(법학76-8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지난 9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

▲黃大俊(대학원81졸 성균관대 교수)=최근 임기 4년의 유네스코 교육정보기술연구소(IITE) 집행

이사에 임명.

▲李昌炫(농생물82-86 前KBS 보도본부 해설위원·국민대 교수)=지난 9월 1일 임기 3년의 KBS 이사에 선임.

▲金東郁(외교93-97 美위스콘신 메디슨대 박사)=지난 9월 15일 미국 스탠포드대 포스트닥터 시험 합격후 프리먼 스포츠킴 산하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徐仙鎬(SGS 4기 한국사회복지개발원장·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자문위원장)=최근 사단법인 호남향우회중앙회 초대 청년회장으로 선임.

행 사

▲丘仁煥(국어교육50-54 모교 국어교육과 명예교수·문학과문학 교육연구소장)=지난 8월 24일 영동 농림 문학관에서 열린 한국크리스찬문학가협회 주최 여류세미나에서 '문화예술과 종교의 위기'로 주제 발표.

▲權赫昇(상학53-57 한국경제전략연구원 이사장)=지난 9월 11일 강원도 강릉시 죽현저수지 부근 한다리 마을에 고향과 어머니를 그리는 공간으로 '思母亭' 공원을 조성해 강릉시에 기증. 권이사장은 한국일보 편집국장·상임고문, 서울경제신문 사장 등 역임.

▲朴燦久(국어교육56-60 한국중등교장 평생동지회장)=지난 8월 18~19일 전북 부안군 변산면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중등교장 평생동지회 창립 10주년 기념 연찬회 개최.

▲李光燦(사회58-62 NGO한국노년유권자연맹 부총재·동국대 겸임교수)=지난 9월 19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민건강보장 정책사' 출판기념회 개최.

▲柳莊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최근 '서비스분야의 수출산업화전략'(한국경제연구원) 출간.

▲鄭興淑(가정교육59-63 중앙대 명예교수)=최근 서울 신사동 세실아트홀에 클래식 감상교실 '유리디체 아카데미' 개설, 매주 화요일 오후 영상콘서트 개최.

▲卞柱仙(영어교육60-64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사대동창회장)=지난 9월 10~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9 세계걸스 카우트 지원재단 연차 총회 개최.

▲金春玉(회화64-68 인하대 겸임교수)=지난 9월 2~6일 서울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작품전 개최.

▲趙誠愛(응용미술64-68 임경관 화공방 대표)=지난 9월 12~16일 서울 예술의 전당 미술관에서 李貞林(회화73-77)·朴顯淑(회화75-79)·全慶鈺(조소75-80)동문과 함께 전시회 개최.

▲徐東喜(응용미술66-70 건국대 교수)=최근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인 더 월드' 2010년 판에 등재됨.

▲朴明潤(보대원74-76 청소년보호위원장·관악회 이사)=지난 9월 30일 모교 대학원생 2명에게 특지장학금으로 1백만원 전달.

▲安炳燦(신대원75졸 언론인권센터 이사장·본부 논설위원)=최근 서울 우이동 봉도수련원에서 '청소년 미디어 인권 캠프-미인 돌아 모여라' 주관. 또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를 주제로 제25차 언론인권포럼 개최.

명복을 빕니다

(괄호안은 향년 표시)

- ▲崔正植(경제45-53 상주탁주합동 대표)=9월 6일 별세(82세)
- ▲白泰昊(응용미술46-51 前이화여대 교수)=9월 22일 별세(84세)
- ▲鄭璟洙(치의학46-50 前동심치과의원장)=9월 14일 별세(83세)
- ▲張基善(사회48-52 前국회의원)=9월 5일 별세(83세)
- ▲金聖九(의학58-62 前마산결핵병원장)=9월 24일 별세(79세)
- ▲盧莊愚(행정60-64 바로닷컴 회장)=9월 19일 별세(66세)
- ▲吳正姬(회화61-65 세종대 명예교수)=9월 3일 별세(67세)
- ▲陳秀一(의학61-67 서울의료원 원장)=9월 17일 별세(67세)
- ▲黃寶榮(사법83-87 변호사)=9월 15일 별세(45세)
- ▲羅基成(HPM 20기 대한기독교한사회장)=9월 9일 별세(86세)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낙성대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naver.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신 간

교육의 향방

－鄭範謨 지음



한림대 총장을 지낸 鄭範謨(교육45-49 한림대 명예 석좌교수)동문이한 국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향방을 반성하고 그 향방을 결정 짓는 기본문제들을 성찰해본 책. 그동안 한국교육학계를 선도하고 후진 교육학자의 육성과 배출에 매진해온 鄭동문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온 한국교육의 한 부에 메스를 가하고 있다. 교실대로 교인 한국교육의 현실 문제를 과감히 밝힘으로써 그것이 문제의 해법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 鄭동문은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운명이다”라고 외치고 있다. <교육과학사刊·값16,000원>

조경수 병해충 도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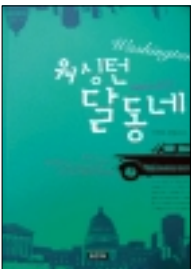
－羅瑢俊 외 지음



모교 농생명공학부 羅瑢俊(농생물 53-57)·禹建錫(농생물 55-59)명예 교수, 산림과학부 李景俊(임학63-71)교수가 모교 식물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조경수의 전염성 병, 비전염성 병, 그리고 해충에 관한 사진을 첨부해 설명한 도감. 전병성 병에서는 병원체(곰팡이, 바이러스, 재선충 등)에 의해 감염되는 병을, 비전염성 병에서는 부적합한 토양, 비정상적인 기상 조건, 생물적 요인(땅굴식물, 야생동물 등), 인위적 요인(대기오염, 농약 등) 등으로 발생하는 생리적 피해를, 그리고 해충에서는 식엽해충, 흡즙해충, 천공해충, 충영형성해충, 종실해충과 응애에 대해 기술했다. <서울대출판문화원刊·값80,000원>

워싱턴 달동네

－李英默 지음



제8대 미주동창회장을 지낸 李英默(섬유공학59-63)동문이 워싱턴 뒷골목의 미주한인들을 통해 들여다본 인간 본연의 실존적 고

독감을 담은 장편소설을 펴냈다. 흑인, 히스패닉, 한국인이 섞여 사는 워싱턴DC 뒷골목의 술가게 ‘파라다이스’를 운영하던 주인공 김석준이 앨러배마에 있는 교도소에 왜 복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운영하던 술가게는 왜 포기했는지, 첫 장면에 나오는 한인들의 묘지에 묻히는 김상철과 주인공공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독자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흥미있게 끌 장면까지 유도하면서 지루하지 않게 곳곳에 부수적인 삽화적 사건들을 다채롭게 연결시키고 있다. <청조사刊·값9,800원>

열린 가슴으로 소통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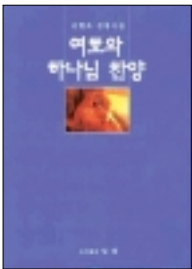
－李哲雨 지음



롯데백화점 李哲雨(농경제61-65)사장이 12년 동안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공의 경험들 그리고 소통과 포용, 섬김의 경영철학을 실천해나가는 노력들을 담았다. 소통과 포용이 최고의 경쟁력이라고 말하는 李동문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더 큰 바다로 가는 이치와 같이 조직의 리더가 먼저 찾아가서 가슴을 열고 직원들과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李동문의 경영철학은 소통의 부재로 인해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경종을 울리는 듯하다. <더난출판刊·값12,000원>

겨울아이 /여호와 하나님 찬양

－金賢玉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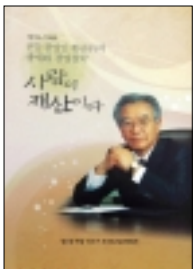


광주문인협회·한국가곡작사가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金賢玉(약학84-88)동문이 두 권의 시집을 펴냈다. ‘겨울아이’는 金동문의 첫 번째 시집으로 사랑과 그리움, 미련에 대한 추억, 삶의 현실에 대한 고난과 극복의 자기 성찰을 통한 자아발견의 모습, 종교적 의지와 탈출하고자 하는 심리적 묘사, 가족간의 사랑과 지혜를 노래한다. 또한 한국시의 정통적인 서정시의 풍을 따르고 있다. ‘여호와...’는 성경시집으로 하

늘나라 소망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요약 정리했다. <도서출판 밀레刊·값7,000원/8,000원>

사람이 재산이다

－李永綠 지음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대한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을 지낸 李永綠(지리66-70 다산연구소 이사)동문이 전문경영인 壽川 鄭壽昌(경성고상41졸 前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동문의 10주기에 즈음해 그의 생애와 경영철학을 담은 추모집을 출간했다. 鄭壽昌동문은 1945년 8·15해방 직후 두산그룹의 전신인 동양맥주의 평사원으로 입사해 오너 경영인이 아니면서도 1971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그룹 회장을 맡아서 수성과 확장의 기틀을 든든하게 다짐으로써 전문경영인의 귀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수장추모집발간위刊·비매품>

공연

두오협회 스페셜콘서트

－ 11월 4일 예술의 전당



한국피아노두오협회가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성년의 축제’라는 주제로 11월 4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제6회 스페셜콘서트를 개최한다. 피아니스트인 한국예술종합학교 林鍾弼(기악77-84)교수(사진上), 이화여대 金廷憲(기악87-91)교수(사진中), 모교 기악과 Aviram Riechert교수(사진下), 朴鍾和전임강사 등이 이날 모차르트, 리게티, 스메타나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피아노포르테 497-1973>

李碩堧 호른 독주회

－ 11월 6일 예술의 전당



호른니스트 李碩堧(기악90-95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동문(사진)이 11월 6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호른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바흐, 베르곤지, 알비노니, 바르보퇴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문의:예인예술기획 586-0945>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은 계속됩니다

《벽돌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 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 △강신호(의학46-52)
 - △곽영필(토목공학56-60)
 - △구평희(정치학47-51)
 - △김상하(정치학45-49)
 - △김은중(경제학59-63)
 - △김정식(전자공학48-56)
 - △김중섭(사회사업66-70)
 - △김형주(토목공학46-50)
 - △박호진(경영학62-66)
 - 김영희(작곡62-66)
 - △신창재(의학72-78)
 - △오동영(조선항공54입)
 - 김찬숙(치의학56-60)
 - △윤세영(행정학56-61)
 - △이준용(경제학56-60)
 - △정계영(상학61-66)
 - △정팔도(AIP 1기)
 - 이자행
 -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 △김병순(AMP 4기)
 - 이지호(의학77-83)
 - △이길여(의학51-57)
 - △정석규(화학공학48-52)
 - △조기호(화학교육54-58)
 - 이영자(생물교육56-60)
- ◆2억원
 - △남정현(건축학57-61)
 - △이종기(경영학69-73)
 - △이준행(섬유공학48-54)
 - △장학순(토목공학46-50)
 - △조필재(조선항공46-50)
- ◆1억5천만원
 - △故김도창(법학43-47)
 - 목춘5부자
- ◆1억2천만원
 - △엄병윤(외교학60-64)
- ◆1억1천1백20만원
 - △미술대학동창회
- ◆1억1천만원
 - △성백전(토목공학52-56)
 - 김인순(화학공학54-58)
 - △수학과동창회
- ◆1억30만원
 - △박성훈(기계공학58-63)
- ◆1억원
 - △강순걸(법학54-58)
 - △곽동현(법학61-65)
 - △김두희(물리학52입)
 - △김문현(상학58-64)

- △故김영경(기계공학52-56)
 - △김정철(건축학52-56)
 - 김정식(건축학54-58)
 - △김창식(전기공학53-57)
 - △나공목(상학56-61)
 - △남상용(건축학52-57)
 - △노인환(경제학54-58)
 -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 △류중희(기계공학53-57)
 - △명태현(기계공학46-50)
 - △박실상(AIC 9기)
 - △박희백(의학51-57)
 - △서정화(법학51-55)
 - △故손치무(대학원70졸)
 - △안성철(행정학58-63)
 - 손윤숙
 - △故양은숙(간호학51-54)
 - △故오응현(섬유공학67-71)
 - 추경옥
 - △오홍조(치의학56-61)
 - △우인성(기계공학58-62)
 - △유상부(토목공학60-64)
 - △이금기(약학55-59)
 - △이상범(법학53-57)
 - △이수범(행정학56-60)
 - △이예식(약학46-49)
 - △이정상(상학59-65)
 - △이지호(의학77-83)
 - △이해원(행정학51-55)
 - △장세일(전기공학59-63)
 - △장중환(의학69-76)
 - △전동용(수의학52-56)
 - △지원철(축산학73-77)
 - △최두형(행정학51-55)
 - △최상홍(기계공학54-58)
 - △최희장(섬유공학58-64)
 - △홍상욱(원예학83-87)
 - △보건대학원동창회
- ◆6천만원
 - △김윤택(경대원68-70)
 - △화학과동창회
- ◆5천2백만원
 - △이현조(철학52-57)
- ◆5천50만원
 - △하상완(치의학64-70)
- ◆5천30만원
 - △이종현(경제학59-65)
 - 신갑순
- ◆5천10만원
 - △박남식(SGS 2기)
- ◆5천만원
 - △강인구(수의학59-64)
 - △공대식(기계공학56-60)
 - △김정희(약학57-61)
 - △김중기(생물교육51-55)
 - △김중서(경제학58-63)
 - △김중현(경제학55-59)

- △류재명(AMP 34기)
 - △마국철(공업교육68-72)
 - △박명윤(보대원74-76)
 - △박주탁(무역학69-74)
 - △손일근(법학51-64)
 - △안 훈(수의학53-57)
 - △오인석(행정학58-62)
 - △유중해(법학50-54)
 - △이도경(농학56-63)
 - 이찬진(기계공학84-89)
 - △이순석(약학61-65)
 - △이승준(섬유공학56-60)
 - 이청원(자원공학67졸)
 - △이운주(의학81-87)
 - 오지은(인류학83-87)
 - △이원규(농생물학58-63)
 - △이재원(상학55-59)
 - △이중대(천문기상학69졸)
 - △이형도(화학공학61-67)
 - 박효순(영어교육66-70)
 - △정대영(경제학51-55)
 - △정재봉(사회사업60-64)
 - △지창수(상학55-59)
 - △하권익(의학57-63)
 - △허병하(상학58-62)
 - △홍예표(치의학65-71)
 - △황해근(토목공학54-60)
 - 故이금옥
 -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 △농대 그린장학회
 - △농대 일산회
 - △한우리SJM
- ◆3천60만원
 - △원정수(건축학53-57)
 - 지 순(건축학54-58)
- ◆3천만원
 - △고원호(기계공학48졸)
 - △박홍일(영어교육60-64)
 - △심형운(토목공학52-56)
 - △유석홍(무역학61-65)
 - 박영희(기악70졸)
 - △이경택(섬유공학57-61)
 - △이광식(약학66-70)
- ◆2천만원
 - △강신혁(문리66-73)
 - △강학순(기계공학64-69)
 - △김원일(건축학61-65)
 - 최미혜(성악66-70)
 - △김재백(약학52-56)
 - △서병문(농공학69-73)
 - △송명호(자원공학59-65)
 - △윤세극(경제학45-51)
 - △조갑주(경제학58-63)
 - 정정영(불어불문62-66)
 - △최정길(금속공학52-56)
- ◆1천5백만원
 - △김철순(조경학76-83)
 - △치불회
- ◆1천2백만원
 - △강웅선(치의학78-84)

- △심영보(의학55-61)
- △안동일(법학59-63)
- △오상호(전기공학48-55)
- △이내원(화학교육58-62)
- △이재철(법학70-77)
- △한규택(원자핵공학73-77)
- ◆1천1백50만원
 - △천남중(자원공학65-69)
- ◆1천1백30만원
 - △신면우(의학50졸)
- ◆1천1백10만원
 - △이홍중(역사교육54-58)
- ◆1천1백만원
 - △김상수(자원공학73-77)
 - 김태훈(건축학02-07)
 -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 △서병태(의학54-60)
 - △조대규(약학58-62)
- ◆1천70만원
 - △김정범(치의학60-66)
- ◆1천60만원
 - △박준욱(약학55-59)
- ◆1천30만원
 - △박만호(행정학57-62)
 - △심이택(화학공학57-63)
 - △이영필(항공공학66-71)
 - △이형하(법학74-78)
 - △지현택(치의학43-47)
 - △허성길(경제학60-64)
- ◆1천만원
 - △강신주(사회교육51-55)
 - △강용현(법학71-78)
 - △강행언(토목공학61-65)
 - △권동은(FIP 4기)
 - △권혁용(불어불문59-63)
 - △금진호(법학50-58)
 - △김 철(기계공학64-68)
 - △김기춘(법학58-62)
 - △김두만(상학59-63)
 - △김미령(약학74졸)
 - △김백준(수학62-66)
 - △김병린(토목공학55-59)
 - △김상호(법학72-76)
 - △김선양(중어중문84-88)
 - △김연호(화학공학71-75)
 - △김영갑(법학74-78)
 - △김영석(경제학60-66)
 - △김영재(공업화학77-81)
 - △김원배(동물학55-60)
 - △김윤중(약학64-71)
 - △김은식(국사학73-80)
 - 윤영옥(생물교육72-76)
 - △김일섭(경영학64-69)
 - △김재범(산업공학74-78)
 - △김재호(생물교육53-57)
 - △김주환(토목공학57-61)
 - △김진규(기계공학61-66)
 - △김찬욱(기계공학55-59)
 - △김철수(법학52-56)

- △김평우(법학63-67)
- △류태환(상학48-54)
- △문규철(응용화학69-73)
- △문대원(경영학71-75)
- △문명국(기계공학73-75)
- △문성훈(식품공학86-92)
- △박덕철(기계공학57-61)
- △박명학(영어교육61-65)
- △박종국(농화학57-63)
- △박준우(의학75-81)
- △박진희(무역학76-80)
- △박창우(경제학80-84)
- △배명인(법학52-56)
- △백시익(채광학40-42)
- △변상현(의학51-57)
- △서계숙(기악56-60)
- △석학진(상학58-64)
- △설동섭(축산학53-57)
- △신방호(경제학67-71)
- △신윤식(사학55-59)
- △안경상(행정학57졸)
 - 김정애(가정교육54-58)
- △양배덕(전기공학57-61)
- △양성철(정치학58-64)
- △엄기영(사회학70-74)
- △오병재(AMP 21기)
- △오용섭(임학60-66)
- △유홍수(법학58-65)
- △유희준(상학49-55)
- △윤영석(경제학58-64)
- △윤희진(축산학63-67)
- △이강수(상학51-55)
- △이경호(행정학61-65)
- △이계우(행정학58-63)
- △이동철(토목공학78-82)
- △이병재(경대원69졸)
- △이병형(화학67-71)
- △이상현(정치학64-68)
- △이석윤(영어영문50졸)
- △이송은(상학53-57)
- △이인기(지질과학62-66)
- △이재후(법학58-62)
- △이전구(임학60-64)
- △이종웅(기계공학65-69)
- △이진규(치의학78-84)
- △이창기(약학55-59)

- △이창원(법학55-60)
 - △장무환(경제학45-51)
 - △장세권(농공학70-76)
 - △장익용(기계공학54-58)
 - △장지준(의학70-77)
 - △장휴동(농경제학59-63)
 - △조길웅(HPM 14기)
 - △조정훈(자원공학75-81)
 - △최남해(상학52-56)
 - △최선집(사회교육75-79)
 - △최승철(기계공학66-70)
 - △최준기(조선항공57-61)
 - △추재욱(의학63졸)
 - △표상기(원자력공학61-65)
 - △하영기(정치학44-48)
 - △한창섭(정치학57-62)
 - △故함인영(기계공학48졸)
 - △함정호(행정학53-57)
 - △허 선(정치학64-68)
 - △홍순자(독어교육61-65)
 - △황경로(AMP 11기)
 - △황남주(물리학87-92)
 - △전북지부동창회
 - △간호대학동창회
- ◆9백만원
 - △김삼복(종교학57-63)
 - △김현산(법학54-58)
- ◆7백만원
 - △정경모(행대원65-67)
- ◆5백만원
 - △박수복(농생물학56-61)
 - △신박일(약학60-64)
 - △윤성근(공업교육74-78)
 - △윤순녕(간호학69-73)
 - △윤익석(축산학49-53)
 - △이윤경(간호학65-69)
 - △이현구(AMP 52기)
 - △정주석(법학61-65)
 - △조상근(행정학69-73)
 - △조원환(AMPP 6기)
 - △법대37회 동기회
 - △AMPFRI동창회
 - △FIP동창회(김명도)
 - △오사카지부동창회
- ◆3백90만원
 - △이정식(지구과학72-76)



◆3백50만원
△임장주 (SPARC 11기)
◆3백30만원
△김석만 (화학57졸)
△이종복 (응용미술62-66)
◆3백10만원
△한규범 (AMP 42기)
◆3백만원
△강영현 (농경제학69-76)
△권숙일 (물리학54-58)
△권혁창 (지구과학69-76)
△김영수 (법학60-64)
△김재율 (경성법전39졸)
△박근식 (화학54-58)
△안재동 (상학60-67)
△이동수 (건축학61-66)
△이성기 (행대원63-65)
△이재식 (교육학75-79)
△임채주 (경제학55-59)
△정영채 (수리학56-60)
△하재규 (농학53-57)
◆2백50만원
△홍순명 (축산학68-72)
◆2백30만원
△강충원 (전기공학59-65)
△이준형 (GLP 11기)
◆2백만원
△김혜경 (생물교육70-74)
△나정우 (농공학72-77)
△문창국 (정치학68-72)
△박태원 (정치학46-50)
△성기학 (무역학66-70)
△오복동 (법학57-63)
△유지열 (외교학84-88)
△윤정일 (교육학62-66)
△이경렬 (응용미술69-73)
△이원태 (농경제학64-68)
△이종순 (법학57-61)
△이흥구 (법학53입)
△이희호 (교육학46-50)
△임규운 (행정학53-57)
△정낙찬 (서양사학9-73)
△정용인 (법학60-64)
△최창식 (의학54-60)
△한영국 (경제학50-54)
△허영호 (전자공학71-75)
△홍석준 (사회학73-77)
△황선용 (사회교육57-61)
△황선태 (법학66-70)
△황의인 (법학74-78)
◆1백80만원
△노 영 (의학70-77)
◆1백73만원
△최인갑 (금속공학57-62)
◆1백60만원
△인효석 (농공학80-87)
◆1백50만원
△곽 승 (화학공학59-63)
△김건호 (수리학70-74)
△윤옥영 (수학58-61)
△이기남 (수학67-71)
△이진호 (화학공학85-89)
△정성진 (법학58-63)
△조귀장 (사법학86-90)
·김주영 (지리학92-97)
△조현래 (대학원75입)
◆1백30만원
△김영균 (법학57-59)
△김종철 (치의학71-77)
△김진익 (법학55-60)
△문일환 (치의학65-71)

명예의 전당에 내 이름을!!
일반회원 10만원 · 이사 30만원 이상

△송진해 (공업교육63-72)
△양동관 (법학67-71)
△이용우 (공업교육64-68)
△이태형 (상학59-63)
△임한조 (물리학67-71)
△정취위 (법학62-66)
△조병철 (섬유공학59-65)
△최동식 (법학76-80)
△최명재 (상학48입)
△추호석 (경영학69-73)
△현전욱 (법학72-76)
◆1백23만4천5백67원
△김성수 (농업교육63-67)
◆1백21만원
△박정식 (의학57-61)
◆1백20만원
△강효식 (치의학57-61)
△김영도 (축산학68-75)
△김주현 (의학65-71)
△김진원 (건축학68-72)
△나명훈 (의학76-83)
△부장렬 (건축학77-81)
△송창기 (중어중문57-62)
△이갑노 (의학65-71)
△이계홍 (농공학56-62)
△이상건 (섬유공학74-78)
△이정우 (AMPFRI 17기)
△이장건 (전기공학49-54)
△차왈보 (의학53-59)
◆1백15만원
△이원영 (ACAD 11기)
◆1백13만원
△홍성욱 (GLP 3기)
◆1백10만원
△김 현 (법학76-80)
△김공립 (약학62-66)
△김기섭 (정치학69-73)
△김기영 (ACAD 49기)
△김도현 (대학원74-76)
△김동만 (GLP 15기)
△김지호 (화학공학55-59)
△명동근 (경제학45-52)
△민미란 (국악73-77)
△박영원 (지리학74졸)
△박창순 (기계공학64-68)
△백 철 (상학56-61)
△백낙운 (독어독문56-60)
△변재용 (토목공학75-81)
△송경희 (국악59-63)
△신동승 (법학79-83)
△원우현 (행정학61-65)
△유종일 (신대원72-74)
△유해덕 (법학53-57)
△이경보 (토목공학46-50)
△이근남 (불어불문68-72)
△이두헌 (행대원74졸)
△이명훈 (농경제학69-73)
△이정자 (국어국문50졸)
△이종팔 (경영학76-80)
△전계묵 (금속공학56-61)
△전영철 (미학53입)
△조준래 (AMPFRI 12기)
△지근진 (농공학58-64)
△최병호 (화학교육57-61)

△최연균 (중어중문67-71)
△허신행 (농경제학62-66)
△홍성완 (토목공학62-66)
◆1백5만원
△장경만 (의학80-87)
◆1백만원
△강구선 (광산학63-67)
△강규석 (물리교육58-62)
△강덕수 (GLP 8기)
△강성수 (섬유공학57-61)
△강성현 (치의학69-75)
△강영복 (상학51-55)
△강원일 (행정학59-63)
△강정일 (농경제학64-68)
△강종표 (외교학76-83)
△강홍섭 (화학공학59-63)
△고 건 (정치학56-60)
△고광우 (행정학53-58)
△고병우 (경제학52-56)
△고의식 (수리학56-60)
△고재선 (섬유공학52졸)
△고호곤 (AMP 58기)
△구재철 (의학78-84)
△권광중 (법학61-65)
△권순철 (전자공학83-85)
△권이혁 (의학41-47)
△김교성 (전기공학51-55)
△김국일 (토목공학63-68)
△김규복 (법학69-73)
△김규형 (약학53-57)
△김기수 (행정학47-51)
△김노수 (섬유공학45-52)
△김달식 (법학53-57)
△김덕영 (토목공학45-47)
△김덕원 (수리학50-54)
△김덕중 (외교학71-75)
△김도연 (행정학58-63)
△김동찬 (생물교육51-55)
△김명자 (화학62-66)
△김방연 (상학52-56)
△김상원 (농경제학52-56)
△김석건 (농경제학50-55)
△김석기 (행정학64-68)
△김석준 (기계공학72-76)
△김승권 (기계공학68-72)
△김연호 (영어교육67-75)
△김영기 (법학54-58)
△김영배 (농공학78-85)
△김영수 (경제학58-62)
△김영일 (법학60-64)
△김영재 (법학57-62)
△김용식 (건축학70-74)
△김용운 (치의학62-68)
△김용찬 (농화학57-61)
△김우동 (계산통계72-79)
△김유경 (SPARC 2기)
△김윤재 (상학54-58)
△김익모 (AIP 23기)
△김인규 (정치학69-73)
△김인중 (법학56-60)
△김일환 (천문기상64-72)
△김재락 (법학78-82)
△김정일 (금속공학58-64)
△김종국 (농화학63-70)

△김종욱 (경제학58-62)
△김주용 (전기공학58-63)
△김준말 (영어교육55-59)
△김증기 (경제학54-58)
△김진우 (약학54-58)
△김진호 (법학57-61)
△김창국 (법학56-60)
△김창순 (경성여사범43입)
△김태현 (제약학71-75)
△김태홍 (화학교육71-79)
△김풍오 (원자력공68-72)
△김학균 (약학51-55)
△김학원 (법학66-70)
△김현채 (법학56-61)
△김형기 (불어교육72-76)
△김형욱 (AIP 37기)
△김형진 (기계공학51-55)
△김혜성 (식품영양70-74)
△김호룡 (법학48-52)
△김홍중 (수학74-78)
△김화중 (간호학63-67)
△김환수 (법학52-56)
△김효종 (법학61-65)
△김후란 (가정교육53입)
△나도선 (약학67-71)
△나종택 (기계공학53-57)
△노승행 (법학58-63)
△류종묵 (상학59-65)
△류철호 (토목공학67-71)
△마인경 (지리교육56-60)
△문광순 (광산학60-64)
△박국양 (의학75-81)
△박성록 (의학65-71)
△박성철 (법학75-79)
△박순억 (치의학66-72)
△박순호 (AMP 43기)
△박승균 (조선항공63-67)
△박승용 (영어교육76-80)
△박양수 (영어교육55-59)
△박영숙 (CHCN 3기)
△박영철 (AMP 40기)
△박인원 (의학76-83)
△박재형 (의학66-72)
△박종찬 (공업교육71-76)
△박종철 (물리학61-66)
△박준서 (법학58-64)
△박해룡 (상학58-63)
△박항숙 (응용미술58-62)
△박흥일 (영어교육60-64)
△배기선 (AIP 25기)
△배상경 (경제학56-61)
△배승환 (기계공학58졸)
△배영한 (상학49-58)
△배인준 (철학70-74)
△백형배 (화학공학47-53)
△변영삼 (금속공학77-81)
△변종문 (공업교육72-76)
△서광벽 (재료공학73-77)
△석준형 (물리학67-71)
△손두식 (임학57-63)
△손완주 (화학공학55-59)
△손환규 (농업교육64-68)
△송병락 (경제학59-63)

△송사일 (농공학80-84)
△송언기 (AMP 28기)
△송인상 (경성고상35졸)
△송종환 (외교학64-68)
△송호룡 (AIC 19기)
△신명중 (법학80졸)
△신수정 (기약59-63)
△신용삼 (경영학73-77)
△신원식 (행정학57-61)
△신정균 (농경제학54-58)
△신필재 (약학55-59)
△신혜순 (가정교육47-51)
△신희명 (물리교육49-54)
△신희섭 (의학68-74)
△심장수 (법학70-74)
△심재갑 (행정학52-56)
△심한배 (공업화학71-76)
△안상돈 (행정학59-63)
△故안재환 (공예92-04)
△안치득 (전자공학76-80)
△안취준 (고고인류61-67)
△양해준 (식품공학82-86)
△양호석 (농화학57-63)
△엄영섭 (화학66-70)
△엄준호 (기계항공95-99)
△여운관 (금속공학53-57)
△오경화 (의류학81-85)
△오세종 (경제학61-65)
△오윤덕 (행정학61-65)
△오인석 (전자공학57-62)
△오진환 (법학75-79)
△오태환 (법학53-57)
△우병규 (정치학51-55)
△우세홍 (생물교육60-65)
△우완식 (경제학57-61)
△우종호 (중어중문60-64)
△우효섭 (토목공학72-76)
△유가영 (기약86-90)
△유위중 (농경제학72-80)
△유제운 (조선항공51졸)
△유진무 (상학62-66)
△유필삼 (전기공학66-73)
△윤근환 (농학50-54)
△윤용철 (경영학83-88)
△윤용학 (독어교육60-64)
△윤원진 (HPM 6기)
△윤재석 (화학교육71-75)
△윤정철 (의학59-65)
△윤정혜 (화학교육59-63)
△윤충섭 (농공학55-61)
△윤홍식 (물리교육56-60)
△이경재 (화학59-63)
△이계관 (약학70졸)
△이광진 (법학77-81)
△이국진 (경영학77-81)
△이규호 (약학60-65)
△이근수 (신대원69졸)
△이기봉 (교육심리54-58)
△이기준 (경제학55-59)
△이기춘 (가정교육61-65)
△이돈구 (임학65-69)
△이동규 (천문기상65-74)
△이미현 (법학79-83)
△이병목 (의학54-60)

△이병일 (농학57-63)
△이병주 (의학61-67)
△이삼취 (농화학66-70)
△이상욱 (경영학86-90)
△이상필 (치의학70-76)
△이석원 (AIP 36기)
△이성호 (농공학71-75)
△이승관 (금속공학64-71)
△이승규 (계산통계75-79)
△이승립 (국어교육66-70)
△이영상 (상학51-55)
△이영상 (상학59-64)
△이용희 (간호학75졸)
△이우연 (정치학45-49)
△이우진 (농화학64-68)
△이의갑 (영어교육70-75)
△이인혁 (섬유공학54-58)
△이일훈 (상학55-60)
△이장무 (기계공학63-67)
△이재원 (기약53-57)
△이재원 (법학77-81)
△이정국 (토목공학62-66)
△이정우 (독어교육64-71)
△이정인 (광산학59-63)
△이종욱 (의학57-63)
△이주환 (역사교육53-57)
△이중환 (의학51-57)
△이진방 (경영학67-71)
△이창호 (기계공학55-61)
△이철영 (상학63-68)
△이철주 (상학59-65)
△이충웅 (통신공학54-58)
△이학숙 (회화54-58)
△이현식 (화학73-78)
△이현재 (경제학48-53)
△이형균 (정치학59-64)
△이형우 (수리학51-55)
△이호인 (응용화학66-70)
△이희숙 (영어교육61-65)
△임광환 (농경제학55-59)
△임미영 (회화77-81)
△임승빈 (건축학67-71)
△임이균 (약학61-65)
△장권봉 (응용미술56-62)
△장삼진 (화학공학51-55)
△장성원 (영어교육57-61)
△장원갑 (기계공학63-67)
△장윤석 (법학68-72)
△장은식 (치의학89-93)
△장찬기 (HPM 8기)
△장철식 (섬유공학49-55)
△장해창 (법학74-78)
△장혜실 (성악69-73)
△전병일 (영어교육66-73)
△전정규 (경제학51-56)
△전종갑 (천문기상64-68)
△전준수 (토목공학61-65)
△전팔근 (영어교육47-52)
△정광섭 (상학66-74)
△정광현 (독어교육71-78)
△정근화 (물리교육63-70)
△정명희 (의학65-71)
△정민섭 (임학59-63)
△정병일 (독어독문78졸)
△정병해 (정치학49-53)
△정상조 (행정학57-62)
△정소성 (불어불문64-69)
△정완호 (생물교육58-63)
△정우식 (항공공학80-84)
△정웅진 (상학63-67)
△정원식 (교육학48-54)

△정은구(법학58-64) △정정길(행정학61-65) △정효섭(사회학59-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규광(정치학48졸) △조대연(법학69-73) △조무제(사대원65-67) △조상래(수의학71-75) △조성근(행대원61졸)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장환(농학53-60) △조현래(사회사업73-77) △지상구(약학54-58)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성박(치의학75-8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차원갑(화학공학48-53) △최 연(섬유공학68-72) △최광현(무역학62-67)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병주(생물교육56-60) △최영룡(법학78-82) △최우철(의학82-88)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종태(행대원66-68) △최창신(약학61-65) △최하순(조선공학65-70) △최효열(기악73졸) △탁미선희(치의학76-82) △하두봉(대학원56-58) △한 영(치의학79-85) △한정섭(건축학48-52) △한철주(의학78-84) △함종한(농업교육63-70) △허정국(치의학55-59) △현덕성(약학66-70) △현임종(상학56-60) △홍동선(임학56-61) △홍상희(응용물리65-72) △홍성오(생물교육50-54) △홍순겸(AIP 5기) △황병선(외교학64-71) △황성재(법학72-76)	△황승기(지구과학69-76) ◆90만원 △김승환(상학67-71) ◆80만원 △김재현(경제학69-73) △박남훈(외교학68-75) △서병규(행대원88-92) △어 당(섬유공학68-72) △우두헌(상학61-67) △유승규(기계설계76-80) △이인재(지질과학64-72) △장영일(치의학64-70) △정상명(행정학68-72) ◆70만원 △서유현(의학67-73) △이병효(공업교육63-67) △이윤하(제약학77-85) △하순봉(독어교육60-64) ◆60만원 △김신원(응용화학64-72) △부영욱(HPM 13기) △안임수(영어교육65-69) △안재휴(광산학52-56) △안태준(기계공학83-91) △여인철(조선공학75-79) △유종상(중어중문66-70) △이범구(물리학69-73) △이용팔(HPM 13기)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정태봉(작곡72-80) △조달호(AMP 7기) △조양태(기계공학64졸) ◆50만원 △강 민(금속공학70-74) △강규범(AMP 62기)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윤결(기계공학53-57) △강인식(농공학79-83) △강일우(섬유공학71-75) △강종호(농학60-64) △곽소진(신대원70졸) △곽언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김 농(토목공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공환(행대원68졸) △김기석(법학59-64) △김남석(기계공학72-79) △김병관(농공학76-80) △김봉군(국어교육60-64) △김상도(조선공학78-82) △김세겸(농공학59-63) △김수학(물리학53-57) △김순철(국사학75-82)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정근(수의학50-59) △김정란(불어불문65-69) △김정우(상학67-71) △김정욱(금속공학58-64) △김종호(SGS 4기) △김지영(식품영양69-73) △김진국(정치학78-85) △김진욱(농학52-56) △김차서(AMP 19기) △김조일(식품영양78졸) △김향원(사회교육65-72) △남시욱(정치학54-58) △남중희(잠사학56-60) △류재택(역사교육66-73) △문학모(경제학58-64) △민병전(정치학52-56) △박 찬(정치학75-79) △박건호(상학59-63) △박순철(사법학83-87) △박시우(제약학69-73) △박양세(약학48-52) △박용희(상학53-57) △박일재(화학공학78-82) △박철홍(AMP 51기) △박태권(토목공학55-59) △반성환(농경제학50-55) △배기성(독어독문68졸) △부경생(농생물학60-64) △손문자(응용미술62-66) △송임숙(생물교육55-59) △승익상(의학61-67)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철영(기계공학70-78) △신한우(사회교육50-55)	△심문섭(조소61-65) △양이훈(물리학65-74) △양흥룡(영어교육71-79) △오규원(행정학65-69) △오병권(조소66-70) △오자복(행대원82졸) △오제국(정치학75-79) △우경자(가정교육61-65) △위정일(의학63-69) △유석기(경제학57-61)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창용(의학82-88) △윤 문(광산학61-67)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체광학50-54) △윤영출(응용미술82-86)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근석(산업공학72-76) △이만섭(치의학57-61) △이상준(기계공학76-80) △이상학(경제학59-63) △이신기(농학58-64) △이육현(제어계측85-89) △이윤주(상학63-70) △이은주(간호학90-94) △이찬영(상학55-59) △이춘구(생물교육54-58) △이춘배(의학83-89) △이평우(불어불문48-56) △이형직(상학67-71) △이홍석(농학52-56) △인정현(법학54-58) △임병주(금속공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임성규(법학76-80) △장낙순(SGS 10기) △장병규(섬유공학54-60) △장순근(지질과학65-69) △장희수(AMP 45기) △정성호(사법학81-85) △정이조(ACAD 48기) △정인조(금속공학71-75) △정대규(수의학56-60) △정대원(농경제학57-61) △조남혁(섬유공학57-61) △조덕찬(상학53-57)	△조수호(회화47입) △조영옥(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주종남(기계공학75-79) △지형준(약학53-57) △채경옥(경영학86-90) △채규대(경제학56-60) △채기원(수학53-59) △채방은(기계공학65-70) △최동수(경영학65-70) △최병선(조선항공60-64) △최순철(치의학73-79) △최운열(경영학70-74)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창호(사법학84-88) △최현수(전기공학76졸) △최흥락(경제학57-61) △한득추(행정학59졸) △한상복(물리학59-63) △한정길(농생물학63-70) △함준표(경제학79-86) △홍석주(경영학72-76) △홍선표(기계공학53-57) △황건호(경영학70-74) △황인경(식품영양70-74) △황정자(가정교육63-67) △황현익(교대원65졸) ▲45만원 △오봉국(축산학48-52)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18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문성철(상학54-58) △문양수(언어학59-63) △문창환(기계설계75-79) △박우병(광산학52-56) △박정부(AMP 61기) △박창진(보대원70-72) △사공일(상학58-64) △서완수(농경제학58-64) △신동수(국사학82-89) △여효성(대학원03-05) △연대성(영어교육60-64) △우보명(임학57-61) △유기수(물리학53-57) △유동립(공업교육68-72) △이계욱(무역학62-67) △이기상(의학73-79) △이대원(상학59-65) △이도천(임학55-60) △이병상(사회학61-65) △이부영(의학52-59) △이영욱(법학52-56) △이재숙(국악59-63) △이재원(법학76-80) △이종휘(경영학66-70)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혜전(기악79-83) △이희달(금속공학70-77) △이희주(가정교육56-60) △이희주(치의학67-73) △임성수(치의학60-66) ◆30만원 △김정문(지구과학70-77) △양태운(FIP 4기) △한광희(치의학66-72) △흥기정(약학60-64) ◆12만원 △정영빈(산림과학01-05) △허경욱(국어교육52졸) ◆10만원 △김재형(조소02-08) 〈이상 2009년 8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출연해 주신 분〉 〈지면관계로 회비납부자 명단은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	--	---	--	---	--